

투표에서의 연고주의: 집단주의 경향성과의 관계 및 기저 동기*

안 신 호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내집단 구성원이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였을 때 그를 지지할지 등을 묻는 설문지를 부산대, 경상대 학생 및 노인들에게 실시하였다. 혈연, 지연, 및 초, 중등학교 학연에 따른 투표 경향성은, 일반적인 집단주의적 행동 경향성과 마찬가지로 노인 - 경상대 - 부산대생의 순이었다. 고등학교 학연의 영향은 부산대생에서 강하였다. 기독교 - 천주교 신자가 불교 신자보다 동일 종교 신자에게 투표하는 경향이 강했다. 회귀분석 결과, 내집단을 위한 희생의 배경이 되는 주요 동기는 사회적 지지, 내집단 편애의 주요 동기는 동일시에 의한 자존감 증진(반영)인 반면, 선거시의 연고주의에는 반영과 사회적 지지 욕구가 대동한 영향력을 가짐이 밝혀졌다. 혈연과 지연에는 주로 반영, 학연에는 사회적 지지 욕구의 영향력이 컸다. 공감 - 이타행동 관계(Batson), 사회정체감 이론, 집단주의를 하나로 포괄하는 이론 틀 속에서 이 결과가 갖는 함의를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지지할 정치후보자(국회의원) 선택에 있어서의 내집단(ingroup) 편들기(연고주의) 현상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시도되었다. Tajfel(1970)의 고전적 연구는 내집단 편들기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임을 아주 설득력 있게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선거에서의 연고주의는 그 정도가 지나쳐 우리 나라 정치 발전에 큰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김만홍, 1994; 이상휘, 1993; 최한수, 1995). 우리 나라 투표에서의 연고주의가 혈연, 지연, 학

연에 따라 어떤 양상을 띄는지, 그리고 그 심리적(동기적) 원인은 무엇인지는 심리학적으로 밝혀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Tajfel과 그의 학문적 후계자들은 내집단 편애가 개인의 자존감을 높이고자 하는 기저 욕구에 기인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Oakes & Turner, 1980; Turner, 1975; Turner, Brown, & Tajfel, 1979).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형성된 이른바 최소집단간 상황(minimal intergroup situation)에서는 그들의 주

* 이 논문은 1995 - 1998년도 부산대학교 기성회 연구지원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이 논문에서 논의할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하여 유익한 평을 주신 두 익명의 평자에게 감사드린다.

장이 옳겠지만, 현실에 존재하는 실제의 집단간 상황에서 보다 다양한 사회적 욕구가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안신호(1999)는 타인(들) 혹은 집단을 위해 행하여지는 여러 행동유형 예컨대, 이타행동(altruistic behavior), 집단간 차별(intergroup discrimination)에서의 내집단 편애(ingroup favoritism), 그리고 집단주의-개인주의(collectivism-individualism) 연구 영역에서의 집단주의 행동경향성을 “사회적 동기-자아확장-행동”의 단일한 이론적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이 사회적 행동 중 하나인 집단주의적 행동경향성에 이 이론적 모형을 적용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시도된 연구에서 여섯 가지 동기변인과 일곱 가지 행동변인을 측정하였는데, 동기변인은 (1)내집단 구성원으로부터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 (2)내집단 구성원으로부터 관심과 도움을 받고자 하는 욕구, (3)내집단 구성원에 대한 의리 지킴의 규범에 충실하고자 하는 욕구, (4, 5)내집단 구성원의 성공을 통하여 자부심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욕구(내집단 구성원 성공시의 자부심, 내집단 구성원 실패시의 수치심), (6)내집단 구성원과의 관계로 인하여 자율감이 상실되는 정도이었다. 행동변인은 (1)내집단 구성원에게 돈을 빌려줌, (2)내집단 구성원에게 복권당첨금을 나눠줌, (3)내집단 구성원을 위하여 자신의 해외여행을 포기함, (4)내집단 구성원의 일을 도와줌, (5)내집단 구성원을 위하여 서류 발급에 특별한 편의를 줌, (6)내집단 구성원의 교통법규 위반시의 특별 대우, (7)내집단 구성원인 후보에게 투표함이었다. 집단주의 행동경향성의 일곱 변인을 요인분석한 결과 세 개의 요인으로 나뉘었는데, 자기희생 요인(돈 빌려줌, 복권당첨금 나눠줌, 여행 포기, 일 도와줌), 내집단 편애 요인(서류발급시 편의, 벌금부과 상황시 묵인함)의 두 요인, 그리고 내집단 구성원에게 투표함 변인은 독립적인 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원래 내집

단 구성원에게 투표하는 행동경향성은 내집단 편애 요인에 속하는 한 변인일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결과는 이 예상에 어긋나는 것이었으며, 각 집단별 세부적인 분석에 있어서도 투표시의 행동경향성은 다른 집단주의적 행동경향성과 상이한 독특한 결과 양상을 보여줌이 밝혀졌다. 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투표시의 내집단 편들기에 관하여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함을 논의하고 있다.

여기서, 안신호(1999)의 결과 중 본 연구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보다 구체적 결과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안신호(1999)는 도시화와 세대차에 따른 집단주의 성향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부산대, 인제대, 및 경상대 재학생, 그리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모았다. 안신호(1999)의 연구의 주관심은 **혈연** 내집단 구성원에 대한 집단주의 성향(집단주의적 동기, 집단주의적 행동경향성)이었다. 집단주의적 성향은 앞에서 열거한 열두 가지 변인에 내집단 구성원을 자신의 정의 속에 포함시키는 정도(자아 확장)를 더하여 열세 변인으로 측정하였으며, 이 변인들에 대한 가족지표(부모, 자녀, 배우자에 대한 반응), 먼-친척지표(“오촌 이상의 친척”에 대한 반응), 차이지표(위 두 지표의 차이)를 산출하여 분석의 단위로 삼았다.

세 대학교 학생과 노인의 네 집단의 비교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밝혀졌다.

- (1) 여성보다 남성들의 집단주의 성향이 더 강하다. 성과 학교/노인의 2×4 이원변량분석 결과에서 성 주효과가 유의한 경우, 거의 항상 남성이 보다 집단주의적인 방향으로이었다.
- (2) 가장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것은 할아버지 집단이었다. 먼-친척지표와 가족 지표 모두에 있어서, 변인들의 약 2/3에서 할아버지 집단의 점수가 여덟 집단 중 가장 컸다.
- (3) 경상대 남학생 집단은 할아버지 집단 다음으로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였다.

남성, 그리고 노인과 농촌 지역의 대학생에서

집단주의 성향이 높다는 이상의 결과들은 우리 나라의 부계 혈연 중심의 집단주의 성향이 근대화, 도시화, 핵가족화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잘 입증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투표시의 내집단 구성원 편들기에 있어서는 이러한 전반적 결과 추세와 다소 다른 측면이 발견되었다. 한 예로,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이 후보로 출마하였을 때(먼 친척은 아님) 그 후보에게 투표하는 행동에 있어서는 오히려 여성의 평균점수가 남성보다 유의하게 더 컸다. 이 현상은 부계 혈연 중심의 집단주의 성향에 따라 예상할 수 있는 바와는 다른 것이었다.

안신호(1999)의 연구는 '집단주의'의 이해에 목적을 둔 것으로서, 한국의 집단주의를 혈연집단에 대한 회생 및 편애로 정의하고 열 가지 혈연관계만을 대상으로 다루었다. 그런데, 우리의 정치에 있어서는 혈연뿐만 아니라, 지연, 학연의 연고주의 역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혈연 뿐 아니라 지연과 학연도 함께 다루기로 한다. 투표에서의 내집단 편들기가 그 내집단의 종류가 혈연, 지연, 학연일 때, 각기 도시화 정도, 연령, 및 성에 따라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안신호(1999)는 앞에서 언급한 여러 변인들에 대하여 지연과 학연관계인 내집단 구성원에 대한 반응도 조사하였으나, 혈연관계인 대상에 대한 자료만을 분석하였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자료 중 모든 내집단 관계 대상에 걸쳐 투표에 관한 반응을 보다 집중적으로 분석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투표시 내집단 구성원을 편드는 현상의 기저 동기가 혈연, 지연, 학연의 연고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지, 아니면 연고 종류 혹은 집단에 따라 다른지도 살펴볼 것이다.

방 법

조사참가자

세 대학교 학생 815명, 노인 146명에게 설문지를 실시하였다(실시시기는 1998년 6월). 인제대생의 결과는 성격상 부산대생과 경상대생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이므로, 이 논문에서는 보다 명료한 비교를 위하여 인제대생의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을 위하여 채택된 것은 부산대 학생 360명(남 176명, 여 184명), 경상대 학생 195명(남 79명, 여 116명), 노인 145명(남 57명, 여 88명), 도합 700명(남 312명, 여 388명)의 자료이었다.

부산대 응답자의 78%는 대도시에서 출생하였으며 13%는 소도시, 9%는 읍면 단위의 시골에서 출생하였다. 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경상대학교 응답자의 58%는 소도시, 27%는 시골, 14%는 대도시 출신이었다. 소도시와 시골을 묶은 '대도시' 대 '소도시+시골' 출신의 비율은 부산대 78 대 22, 경상대 14 대 86이었다($\chi^2(1)=205.53, p<.001$). 이 비율로 보아, 두 대학교 학생의 비교는 도시화에 따른 차이를 잘 대변할 것으로 상정하였다. 노인 응답자들은 현재 부산에 거주하는 중이었으나, 시골에서 출생한 비율이 아주 높았고(50%), 소도시(27%) 및 대도시(23%) 출생 비율은 낮은 편이었다. 두 대학생 집단 각기 약 반(부산대 45%, 경상대 58%) 정도는 종교가 없었으며, 나머지 학생의 약 반은 각기 불교 신자이거나(부산대 29%, 경상대 21%), 기독교(천주교 포함) 신자(부산대 25%, 경상대 20%)이었다. 노인은 종교가 없는 비율이 낮았고(17%), 불교 신자가 50%로서 가장 많았다(기독교, 및 천주교 신자는 32%). 노인의 연령은 52세부터 85세(남 55 - 83세, 여 52 - 85세)로서 평균 연령은 66세(남 65.7, 여 66.1)이었다. 60대가 가장 많았으며(남 63%, 여 50%), 70대는 남, 여 각 23%이었다.

도구 및 절차

대학생 참가자의 자료는 정규 수업시간 중의 설문지 실시를 통하여, 노인 참가자의 자료는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학생들의 개별 면접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대학생의 경우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45분이었으며, 노인의 경우 약 1시간이 소요되었다. 대학생은 보너스 점수, 노인은 시가 1만원 상당의 물품을 사례로 받았다.

21페이지를 한 묶음으로 한 설문지가 사용되었다. 설문지 1은 Aron 등(Aron, Aron, & Smollan, 1992; Aron, Aron, Tudor, & Nelson, 1991)의 자아 확장 척도이었다(안신호, 1999 참조). 설문지 2부터 설문지 16까지는 집단주의적 행동경향성(설문지 2 - 설문지 10)과 집단주의적 동기(설문지 11 - 설문지 16)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것은 이 중 설문지 8과 설문지 11부터 16까지의 척도에 대한 반응이었다.

설문지 8에서는, “당신 선거구의 현 국회의원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국회의원의 자질이 인정된 사람이라고 상상하십시오. 그런데 그 현 국회의원의 경쟁자로 다음 열거하는 각 항의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출마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은 미지수이지만 평소의 건실한 생활로 보아 적어도 정치모리배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는 안심해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 투표하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리고 “주저없이 그 사람에게 투표할 것으로 생각되면 4, 약간 주저하겠지만 그 사람에게 투표할 것으로 생각되면 3, 다소 주저하겠지만 현 국회의원에게 투표할 것으로 생각되면 2, 별 주저없이 현 국회의원에게 투표할 것으로 생각되면 1을 ()에 쓰십시오” 라고 응답 방식을 안내하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다음의 대상 인물을 열거하였다. (1)처음 만난 낯선 사람, (2)초등학교 동창생, (3)중학교 동창생, (4)고등학교 동창생, (5)가입한 서클(모임)의 동료, (6)가장 친한 친구 (7)

같은 지역(도, 특별시, 광역시) 출신인 사람, (8)같은 지역(중소 도시, 읍면, 구) 출신인 사람, (9)같은 지역(리, 동) 출신인 사람, (10)부모, (11)형제 자매, (12)조부모, (13)삼촌, 외삼촌, 이모, 고모, (14)사촌, (15)오촌 이상의 친척, (16)친척은 아니지만 동성 동본인 사람, (17)약혼자 혹은 배우자(약혼을 하였거나 결혼을 하였다고 상정하고 답함), (18)자녀(결혼하여 자녀를 두었다고 상정하고 답함), (19)손자, 손녀(손자, 손녀를 둔 50대 후반 혹은 60대 초반 연령이라고 상정하고 답함), (20)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무신론자인 경우 다른 무신론자).

설문지 11과 설문지 12는 Triandis, Leung, Villareal, 및 Clark(1985)에서 차용한 것이었다. 설문지 11은 내집단 구성원과의 동일시를 통하여 자신의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경향성을 측정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경향성을 최근 Tesser는 반영(reflection)이라 부르고 있다(Tesser, 1986, 1988; Tesser & Campbell, 1980, 1982). 내집단 편애에 관한 Tajfel과 Turner(1979, 1986)의 사회정체감 이론은 이 반영을 통한 자존감 증진을 내집단 편애의 유일한 동기로 간주하고 있을 정도로 내, 외집단 구성원에 대한 심리현상에서 주목되는 동기이다. 설문지 11은 대상 인물이 아주 어려운 일에 성공하여 큰 상을 받고 또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경우 그 사람의 성공이 자신의 자부심을 높이는 데 얼마나 영향을 주리라 생각되는지, 그리고 설문지 12에서는 대상 인물이 아주 큰 잘못을 저질러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경우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자신 스스로를 얼마나 수치스럽게 느끼게 되리라 생각되는지에 대하여 답하도록 요구하였다.

설문지 13과 14는 사회적 지지 욕구 충족 기대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제작되었다. 설문지 13에서는 대상 인물이 자신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해 주리라 생각하는지, 설문지 14에서는 힘든 문제에 봉착했을 때 대상 인물이 얼마나 자신의 그 문제

를 함께 걱정해주고 도와주리라 생각하는지의 각 질문에 답하도록 요구하였다.

설문지 15는 Baumeister(1988, 1991)의 가치(value) 욕구, 즉 집단주의적 행동을 통하여 자신이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대상 인물에게 의리를 지킬 수 없게 된다면, 즉 그 사람(들)의 도움 요청을 거절할 수밖에 없다든지 할 경우, 얼마나 죄책감을 느낄 것 같은지 답하도록 지시하였다.

설문지 16은 집단주의적 행동으로 인하여 자율의 욕구에 좌절을 받으리라 예상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었다. 즉, 대상 인물과의 관계에 수반되는 번거로움으로 인하여, 즉 그 사람이 자신의 문제에 과도하게 참견한다든지, 그 사람의 일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희생해야 한다든지 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하여, 자신이 원하는 자율적인 삶에 얼마나 방해받는다 생각하든지 답하도록 지시하였다.

노인용 설문지는 기본적으로 학생용 설문지와 동일하였다. 단지 보다 분명한 존대어 어미를 사용한 것과 대상 인물 제시시 약간의 표현상의 차이만이 있었다. 즉, 같은 서클 친구를 “가입하신 모임의 동료”로 대체하였으며, 그리고 대학생에게 자녀, 손자, 손녀, 배우자 등의 대상을 제시할 때 첨가하였던 단서(예컨대, 자녀의 경우, “당신이 결혼하여 장성한 자녀를 두었다고 가정함”)를 삭제하였다.

결 과

먼저, 대상 인물을 혈연, 지연, 학연, 및 기타관계로 나누어 투표시의 내집단 구성원 편들기 현상이 연고의 종류에 따라 집단별로 어떠한 양상을 띄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지연은 대상 인물이 같은 리동(리, 동) 같은 읍면(중소도시, 읍면, 구), 같은 시도(도, 특별시, 광역시) 출신인 세 경우이고, 학

연은 같은 초등학교, 같은 중학교, 같은 고등학교 출신인 세 경우이었다. 기타 연고 관계는 친한 친구, 같은 서클(노인인 경우에는 ‘귀하께서 가입하신 모임’)의 동료, 그리고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의 세 경우이었다. 혈연은 부모, 자녀 등의 가족에서부터 동본인 사람처럼 먼 혈연까지 열 가지 대상이었다.

혈연

예비분석 결과, 부모, 자녀, 형제, 배우자, 조부모, 손자녀와 같은 ‘가족’에 대한 각 집단별 반응 양상은 유사하였다. 투표시의 연고주의에 있어 가족 구성원 편들기는 사회문제로 중요성이 약하므로 결과의 간략한 제시를 위하여 통합하였다. 삼촌과 사촌에 대한 결과도 같은 이유로 통합하였다(자세한 결과는 부록 1 참조). 표 1은 혈연 관계인 사람이 후보일 때 그 사람에게 투표할 의도를 표화한 것이다. 먼저 응답자 전체의 반응 양상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직계 가족, 가까운 친척(삼촌, 사촌), 먼 친척(오촌 이상), 동성 동본의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동본에 대한 평균이 낮지만(1.67), 이 점수는 낯선 사람(1.40)에 비하면 유의하게 높은 점수이다($t(945)=3.77, p<.001$).¹⁾²⁾ 이전 연구(안신호, 1999)의 가족

1) 낯선 사람에 대한 투표 변인 반응의 변량분석 결과, 모든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전 연구(안신호, 1999)에서는 여러 종속변인 중 낯선 사람에 대한 반응에 집단간 차이를 보이는 것이 있어, 낯선 사람에 대한 응답치를 변 값을 측정치로 삼았으나, 이 분석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 원 평정수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2) 한 평자는 이 연구에서 “외집단에 투표할 의도와 의 비교”가 없는 것을 논의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구체적인 외집단의 존재는 그 외집단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예컨대, 그 외집단이 내집단과 얼마나 심한 경쟁관계인지, 아니면 그 외집단과 내집단이 제 삼의 다른 외집단에게 공동으로 대적하고 있는 관계인지 등)에 따라 아주 상이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외집단이 잘되는 것이 끝보기 싫어 탐탁지 않은 다른 외집단을 지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본 연구는 우리 나라 사람들의 집단주의적 경향성의 한 예로서 ‘선거에서의 연고주의’를 다루고 있으며, 집단주의

표 1. 혈연 대상에 대한 투표시 편들기의 집단별 평균(위) 및 표준편차(아래)

대상인물	노 인			경 상 대			부 산 대			전 체		
	남	여	합	남	여	합	남	여	합	남	여	합
가족a	3.53	3.66	3.61	3.25	3.54	3.41	3.40	3.38	3.39	3.39	3.49	3.44
	.75	.70	.72	1.00	.73	.86	.85	.84	.84	.88	.78	.83
삼촌, 사촌	3.34	3.34	3.34	3.09	3.28	3.20	3.15	3.03	3.09	3.17	3.17	3.17
	.80	.92	.87	1.10	.94	1.01	.94	1.04	.99	.96	.99	.98
오촌 이상	2.79	2.90	2.85	2.66	2.59	2.62	2.57	2.41	2.49	2.63	2.58	2.60
	.93	1.16	1.07	1.15	1.11	1.13	1.08	1.07	1.08	1.07	1.12	1.10
동본	1.77	1.93	1.87	1.72	1.72	1.72	1.66	1.61	1.64	1.70	1.72	1.71
	.91	.96	.94	.92	.92	.92	.91	.86	.89	.91	.91	.91

a.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조부모, 손자녀.

(부모, 자녀, 배우자의 통합)과 오촌 이상의 먼 친척에 대한 반응만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여성의 가족에 대한 편들기가 남성보다 강함이 나타났다. 그런데, 모든 혈족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투표시 더 강한 편들기를 하는 혈연 대상은 부모, 자녀, 배우자, 손자녀이었으며, 형제, 조부모 및 삼촌 이상의 친척관계에 있어서는 남녀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³⁾

투표시 가족을 편드는 정도는 노인(남 3.53, 여 3.66)에서 매우 높았으며(변량분석 결과 학교/노인 집단 주효과 $F(2, 665)=3.37, p<.04$), 경상대 여학생(3.54)에서도 높았다. 경상대 남학생(3.25)은 상대적으로 아주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F(1, 182)=5.11, p<.025$), 특히 경상대 남학생의 이 낮은 점수

는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외집단을 염두에 두지 않는, 즉 외집단에 대하여서는 아예 관심이 없고 내집단에만 집착하는 경우이다. 본 연구에서의 “낯선 사람”은 집단주의의 ‘일반적인 외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3) 변량분석 결과 부모($F(1, 693)=2.37, p=.12$), 자녀($F(1, 674)=2.97, p<.09$), 배우자($F(1, 672)=5.91, p<.02$), 손자녀($F(1, 673)=4.01, p<.05$)에서 성의 주효과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 성차는 세 집단에 걸쳐 고루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으며, 주로 경상대생과 노인들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경상대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부모($F(1, 193)=4.83, p<.03$), 형제($F(1, 193)=3.76, p<.06$), 및 배우자($F(1, 183)=6.91, p<.01$)에서, 그리고 할머니들은 할아버지들보다 손자녀에서($F(1, 142)=3.76, p<.06$) 특히 점수가 높았다(부록 1 참조).

로 전체 자료의 변량분석 결과 성 주효과($F(1, 665)=3.52, p<.06$)가 유의하였으며 상호작용 효과의 경향성이 있었다($F(2, 665)=2.19, p=.11$)

삼촌, 및 사촌에 대한 반응은 가족 구성원에 대한 반응과 약간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부산대 여대생의 점수(3.03)가 경상대 남학생(3.09)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은 것이 특징적 현상이었다. 반면, 경상대 여대생(3.28)은 노인들(남녀 모두 3.34)과 같은 수준의 높은 점수를 보였다. 노인들의 점수가 두 대학 학생들의 점수보다 일반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전체 집단간 2×3 변량분석 결과 학교/노인 집단 주효과($F(2, 693)=3.35, p<.04$)가 유의하였다. 경상대 여학생은 점수가 높고 남학생은 점수가 낮은 데 반하여, 부산대생에서는 오히려 남학생(3.15)의 점수가 더 높은 경향이 있어서 대학생 자료만의 2×2 변량분석 결과에서는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였다($F(1, 551)=3.08, p<.08$).

오촌 이상의 먼 친척 그리고 동성 동본인 대상에 대한 반응은 위의 가족 및 가까운 친척에 대한 반응 양상과 매우 달랐다. 노인들의 점수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경상대 남학생의 점수가 노인들 다음으로 높은 것이 큰 차이점이었다. 그래서 노인 - 경상대생 - 부산대생 순의 집단주의 성향의 일반적인 결과 양상을 보였다(안신호, 1999 참조). 전체 집단간 2×3 변량분석 결과 학교/노인 집단

주효과(오촌 이상 $F(2, 693)=5.14, p<.006$; 동본 $F(2, 694)=2.86, p<.06$)가 유의하였다.

가족 및 가까운 인척에 대한 편들기는 연고주의라 부르기는 곤란하고 가족주의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부모, 형제, 자녀, 배우자, 손자녀에 대한 편들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여성들, 특히 할머니가 아주 강하고, 경상대 남학생에서 특히 낮았다. 삼촌 및 사촌에 대한 편들기에서는 경상대 여대생과 할아버지도 할머니에 크게 뒤지지 않는 정도로 높았으며, 경상대 남학생은 여전히 점수가 낮았다. 결혼을 계기로 삶의 의미의 원천으로서 가족의 가치를 높게 여기게 됨(안신호, 1997)을 고려하면, 노인들의 반응은 쉽게 이해될 수 있다. 미리 예상할 수 없었던 현상은 경상대 학생의 반응이었다. 도시화되지 않은 지역의 미혼 여성들은 보다 가족주의 성향이 강한 반면, 도시화되지 않은 지역의 미혼 남성들은 가족주의 성향이 낮다는 결과인 것이다. 안신호(1999)의 결과에서도 경상대 남학생은 가족 성공시의 자부심과 가족 실패시의 수치심을 느끼는 정도, 즉 가족과의 동일시를 통한 자존감 증진의 정도가 타 집단보다 낮았으며, 가족에게 의리를 지키는 것에도 썩 기꺼워하는 편이 아니었다. 경상대 여대생은 이전 연구의 결과에서는 경상대 남학생만큼 심한 정도는 아니지만 가족에의 동일시를 통한 자존감 증진, 가족에의 의리 지킴 규범 존중 측면에서 부산대, 인제대, 및 노인 집단보다 낮았었는데, 투표시의 편들기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발견되지 않으며, 가족권 밖의 가까운 친척(삼촌, 사촌)에 대한 편들기에 있어서는 다른 대학생 집단보다 강한 것이 드러났다. 경상대 남학생의 결과는 시골 청년으로서 가족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욕구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고, 가족을 당당하게 생각하지 않는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경상대 여학생은 여성으로서 그러한 욕구를 누르고, 국회의원 후보라는 보다 확연한 “성공” 상황에서는 노인들처럼 강한 편들기를 하게 되는 것 같다.

혈연 대상 중 본 연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오촌 이상의 친척과 동본이 대상 인물이었을 때의 반응이다. 실제의 투표 상황에서 문제될 수 있는 혈연 연고주의의 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노인에서는 할머니의 점수가 할아버지보다 높았으나, 두 대학교 학생에서는 각기 남학생의 점수가 더 높았다. 그리고 집단주의적 성향의 전형적 결과양상인 “노인 - 경상대생 - 부산대생”의 순서(안신호, 1999)를 나타내었다. 우리사회에 문제되고 있는, 소위 혈연관계에 호소하는 선거 운동 풍토는, 집단주의 성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도시화가 덜 된 지역 사람들, 그리고 보다 연장자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추론을 하게 된다.

개인주의 - 집단주의 연구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Hofstede(1980, 1991)에 의하면, 일본이 부유해지고 도시화, 핵가족화 되어 가면서 개인주의 성향으로 변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자료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한성열·안창일, 1990). 투표시의 혈연 연고주의적 행동 경향성은 혈연을 자기의 정의에 포함시키는 경향성을 비롯한 집단주의적 동기 및 행동경향성이 사람들이 부유해지고 도시화, 핵가족화 될수록 감소하는 현상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연

투표시 지연 대상에 대한 편들기 현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국회의원 후보로 같은 리동, 읍면, 및 시도 출신인 사람이 출마하였을 때의 지지 여부를 물었다. 표 2에 의하면, 가장 작은 지역 단위인 같은 리동 출신인 대상에 대한 반응은 먼 혈연에 대한 반응에서와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집단주의 성향의 반응 유형이었다. 즉, 노인(2.20), 경상대생(1.99), 부산대생(1.79)의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전체 집단간 2×3 변량분석 결과 학교/노인 집단 주효과($F(2, 689)=8.55, p<.001$), 그리고 대학생 자료만의 2×2 변량분석 결과 대학간 주효과($F(1, 551)$

표 2. 지연 대상에 대한 투표시 편들기의 집단별 평균(위) 및 표준편차(아래)

대상인물	노 인			경 상 대			부 산 대			전 체		
	남	여	합	남	여	합	남	여	합	남	여	합
동일 리동	2.11	2.25	2.20	1.95	2.03	1.99	1.80	1.79	1.79	1.89	1.97	1.93
출신 사람	1.04	1.03	1.03	1.01	.93	.96	.92	.94	.93	.97	.97	.97
동일 읍면	1.79	2.09	1.97	1.78	1.84	1.82	1.71	1.67	1.69	1.74	1.82	1.78
출신 사람	.92	.99	.97	.94	.88	.91	.91	.85	.88	.92	.90	.91
동일 시도	1.66	2.06	1.90	1.72	1.81	1.77	1.70	1.65	1.67	1.70	1.79	1.75
출신 사람	.84	.96	.93	.92	.85	.88	.91	.85	.88	.90	.89	.89

=4.50, $p<.04$)가 유의하였다.

그런데 약간 큰 단위의 지역(중소도시, 읍면, 구)을 동향으로 하는 대상에 대한 반응의 전반적인 경향성은 노인 - 경상대생 - 부산대생의 순이기는 하나, 할머니들의 점수(2.09)가 특히 높은 반면 할아버지들의 점수(1.79)는 다소 낮아 경상대생의 평균(1.82)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학교/노인 집단간 주효과(전체 2×3 변량분석 $F(2, 690)=4.04$, $p<.02$) 뿐만 아니라 집단 $\times$ 성의 상호작용 효과(두 대학을 통합한 학생/노인 2×2 변량분석 $F(1, 692)=2.99$, $p<.09$)도 유의하였다. 노인들에서의 성차 역시 $F(1, 141)=3.41$, $p<.07$ 로 경향성을 보였다. 다른 변인들에서 남성의 평균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던 할아버지 집단의 점수가 낮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교에서의 성차도 유의하였다(두 대학을 통합한 학생/노인 2×2 변량분석 결과 성 주효과 $F(1, 692)=3.19$, $p<.08$).

리동과 읍면에서의 결과 양상의 차이는 더 큰 지역단위인 시도(도, 특별시, 광역시)에 있어서는 더욱 두드러졌다. 즉, 전반적인 경향성은 노인 - 경상대생 - 부산대생의 순이었으나, 할머니들의 점수(2.06)가 특히 높은 반면 할아버지들의 점수(1.66)는 경상대생의 평균(1.77)보다 낮고, 부산대생의 평균(1.67)과 비슷하였다. 따라서, 학교/노인 집단간 주효과(전체 2×3 변량분석 $F(2, 690)=2.25$, $p<.10$; 두 대학을 통합한 학생/노인 2×2 변량분석 $F(2, 692)=3.15$, $p<.08$) 뿐만 아니라 성과의 상호작용

효과(전체 2×3 변량분석(2, 690)=3.10, $p<.05$; 두 대학을 통합한 학생/노인 2×2 변량분석 $F(1, 692)=5.26$, $p<.03$)도 유의하였다. 그리고 전체적인 비교에서의 성차 및 노인들에서의 성차도 유의하였다(전체 2×3 변량분석 (1, 690)=3.99, $p<.05$; 두 대학을 통합한 학생/노인 2×2 변량분석 $F(1, 692)=5.68$, $p<.02$; 노인들간의 성차 $F(1, 141)=6.45$, $p<.02$).

지역 연고에 의한 후보자 편들기 현상은 전반적으로는 혈연에 의한 후보자 편들기, 즉 “오촌 이상”과 “동분”에 대한 반응과 비슷한 집단주의 성향의 추세, 즉 노인 - 경상대생 - 부산대생의 순서이었다. 전반적으로 약간 큰 지역 단위인 “읍면”과 “시도”에 대한 편들기 반응(1.78과 1.75)보다 “리동”에 대한 반응(1.93)이 더 높았다. 할아버지 집단에서는 지역의 단위가 커짐에 따라 편들기의 정도가 감소하는 경향성이 보다 뚜렷하였다. 지연 종류(3: 리동, 읍면, 시도) $\times$ 학교/노인(3)의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남녀 별로 실시한 결과, 남성 자료에서는 지연 종류의 주효과($F(2, 614)=46.80$, $p<.0001$)와 상호작용효과($F(4, 614)=7.51$, $p<.001$)가, 여성 자료에서는 지연 종류의 주효과($F(2, 760)=40.89$, $p<.0001$)와 집단 주효과($F(2, 760)=7.29$, $p<.001$)가 유의하였다.

학연

표 3의 투표시 학연에 따른 편들기 반응 결과에

표 3. 학연 대상에 대한 투표시 편들기의 집단별 평균(위) 및 표준편차(아래)

대상인물	노 인			경 상 대			부 산 대			전 체		
	남	여	합	남	여	합	남	여	합	남	여	합
초등학교	2.11	1.99	2.04	2.03	1.73	1.85	1.86	1.71	1.79	1.95	1.77	1.85
동창생	.98	.99	.98	1.01	.90	.95	.95	.84	.90	.97	.89	.93
중등학교	2.13	1.93	2.03	2.09	1.84	1.94	2.04	1.79	1.91	2.07	1.83	1.94
동창생	.91	.91	.91	.98	.90	.94	.97	.84	.91	.96	.87	.92
고등학교	2.32	2.19	2.26	2.34	2.10	2.20	2.50	2.26	2.38	2.43	2.20	2.31
동창생	.93	1.02	.97	1.00	.91	.95	.99	.93	.96	.98	.93	.96

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앞의 혈연 및 지연의 결과와 달리, 남성의 점수가 확연하게 여성보다 높다는 것이다. 세 가지 동창관계 모두에서 부산대생과 경상대생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점수가 높았다. 초등학교 동창생이 대상인 경우, 성의 차이는 경상대 $F(1, 193)=4.50, p<.04$, 부산대 $F(1, 358)=2.59, p=.10$, 중학교 동창생이 대상인 경우, 경상대 $F(1, 193)=3.22, p<.08$, 부산대 $F(1, 358)=6.63, p<.01$, 고등학교 동창생이 대상인 경우, 경상대 $F(1, 193)=2.99, p<.09$, 부산대 $F(1, 358)=2.59, p<.02$ 로 유의하였다.⁴⁾ 노인들에서는 남녀간 점수 차이가 대학생들에서보다는 작고, 사례수 또한 작아(이해할 수 있는 바이지만, 고학력 동창관계로 갈수록 노인들 중 무응답자수가 증가하였다) 유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표 3의 결과에 의하면, 초등, 중등, 고등학교 동창관계의 학연은 상급학교의 학연일수록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고등학교 학연은 매우 중시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경향성은 부산대에서 특히 강하였다. 학연 종류(3: 초등, 중등, 고등)×학교/노인 집단(3)의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남

녀 별로 실시한 결과, 남녀 모두 학연 종류의 주효과(남성 $F(2, 586)=44.20, p<.0001$; 여성 $F(2, 668)=54.46, p<.0001$)와 상호작용 효과(남성 $F(4, 586)=4.50, p<.001$; 여성 $F(4, 668)=4.70, p<.001$)가 유의하였다. 학연 종류의 주효과는 상급학교일수록 중요시됨을 반영하는 것이고, 상호작용효과는 남녀 모두 부산대생에서 고등학교 학연을 초, 중등학교 학연보다 더 중요시하는 정도가 다른 두 집단보다 월등히 큰 데 기인하는 것이었다.

대상 인물이 초등학교 동창관계인 경우에는, 남녀 각기 노인 - 경상대생 - 부산대생 순이었는데, 노인(2.04)이 높고 경상대(1.85), 부산대(1.79)생은 낮아 변량분석 결과 집단 주효과가 유의하였다(전체 자료 2×3 변량분석에서 $F(2, 678)=3.73, p<.03$). 대상 인물이 중학교 동창관계인 경우에도 역시, 남녀 각기 노인 - 경상대생 - 부산대생 순이지만, 점수상으로는 노인(2.03), 경상대생(1.94), 부산대생(1.91)이 비슷하여 집단 주효과는 없었다.

대상 인물이 초등, 혹은 중학교 동창인 경우에는 부산대생의 점수가 가장 낮았으나, 고등학교 동창관계인 경우에는 남녀 모두 부산대생의 점수(평균 2.38)가 노인(2.26) 및 경상대생(2.20)보다 높았다. 전체 자료 2×3 변량분석의 집단 주효과는 $F(2, 627)=1.89, p=.15$, 대학생 자료만의 2×2 변량분석에서는 $F(1, 551)=3.39, p<.07$ 이었다.

초등 및 중학교 동창의 학연 연고에 의한 후보자 편들기는 남성에서 여성보다 높고, 남녀 각기

4) 물론, 변량분석 결과에서도 성의 주효과는 유의하였다. 전체 자료 2×3 변량분석의 성 주효과는 초등학교 동창 $F(1, 678)=5.85, p<.02$, 중학교 동창 $F(1, 642)=7.34, p<.007$, 고등학교 동창 $F(1, 627)=4.79, p=.15$ 이었으며, 대학생 자료만의 2×2 변량분석에서의 성 주효과는 초등학교 동창 $F(1, 551)=7.31, p<.007$, 중학교 동창 $F(1, 551)=8.83, p<.003$, 고등학교 동창 $F(1, 551)=7.75, p<.006$ 이었다.

노인 - 경상대생 - 부산대생 순이라는 점에서, 집단 주의적 성향의 일반적인 반응 양상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다(안신호, 1999 참조). 그런데, 고등학교 동창의 학연 연고에 의한 후보자 편들기에 있어서 부산대생에서 가장 높다는 점은 아주 특이한 현상이었다. 이는 학교 수준에 따라 그 학교 출신이라는 것을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으로 삼는 정도가 다를 것이라는 점(Turner, 1982)과 관련이 있을 지도 모른다. 고등학교 동창생에 대한 반응에 비추어 볼 때, 학연에 따른 후보자 편들기에는 집단주의에 작용하는 동기와는 다른 동기적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기타 관계

친구: 전반적으로 남성에서 그리고 부산대생에서 점수가 높다는 점에서 대상 인물이 고등학교 동창관계인 경우와 결과 양상이 비슷하였다(표 4). 그런데, 부산대 남학생의 점수가 아주 높고(3.41) 할머니에서 점수가 낮은(3.01) 것은 고등학교 동창관계인 경우와 일치하나, 경상대 남학생(3.08)에서 점수가 낮은 것은 일치하지 않았다. 나머지 세 집단은 3.22 - 3.25로 비슷하였다. 두 대학 남학생의 큰 차이로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였다(전체 자료 2×3 변량분석 $F(2, 694)=2.40, p=.09$, 대학생 자료만의 2×2 변량분석 $F(1, 551)=3.98, p<.05$). 부산대 학생이 남녀 모두 점수가 높아 집단 주효과 역시 유의하였다(전체 자료 2×3 변량분석 $F(2, 694)=3.34, p<.04$, 대학생 자료만의 2×2 변량분석 $F(1, 551)=4.47, p<.04$). 노인($p=.16$)과 부산대생에

서의 성차가 현저하여($F(1, 358)=3.88, p<.05$) 학생/노인 2×2 변량분석에서의 성 주효과가 유의하였다($F(1, 696)=3.14, p<.08$).

투표시 친구 편들기의 정도와 다른 대상 인물에 대한 편들기 정도와의 비교(표 8 및 부록 1 참조)는 매우 재미있는 결과를 보여준다. 부산대 남학생의 친구에 대한 평균점수(3.41)는 부모(3.56)와 형제(3.53)에 대한 평균점수보다는 낮지만 그 밖의 다른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점수보다 높은 것이었다. 부산대 여대생의 친구에 대한 편들기(3.23) 역시 조부모에 대한 편들기와 같은 수준이며, 삼촌에 대한 점수(3.08)보다도 높았다. 노인과 경상대생의 경우에는 사촌에 대한 점수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는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라 혈족의식이 그만큼 약화된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서클 혹은 모임의 동료: 할아버지(2.59)에서 그리고 부산대 남학생(2.42)에서 높고 이어 할머니(2.31), 부산대 여학생(2.26), 경상대 여학생(2.20), 경상대 남학생(2.16) 순이었다. 노인 - 부산대생 - 경상대생의 차이가 각기 매우 커서 집단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전체 자료 2×3 변량분석의 집단 주효과는 $F(2, 678)=2.99, p<.06$, 대학생 자료만의 2×2 변량분석에서는 $F(1, 551)=6.91, p<.009$ 이었다. 노인($p=.11$)과 부산대생($p=.11$)에서의 성차가 커서 학생/노인 2×2 변량분석에서의 성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 680)=4.07, p<.05$).

동일 종교 믿는 사람: 무신론자에게는 같은 무신

표 4. 친구 및 기타 대상에 대한 투표시 편들기의 집단별 평균(위) 및 표준편차(아래)

대상인물	노 인			경 상 대			부 산 대			전 체		
	남	여	합	남	여	합	남	여	합	남	여	합
친 구	3.25	3.01	3.10	3.08	3.22	3.16	3.41	3.23	3.32	3.29	3.18	3.23
	.93	1.00	.98	1.08	.93	1.00	.84	.85	.85	.93	.91	.92
서클(모임)	2.59	2.31	2.42	2.16	2.20	2.19	2.42	2.26	2.34	2.39	2.25	2.31
	.93	1.04	1.00	1.07	.94	.99	1.02	.94	.98	1.02	.96	.99

론자인 대상에 대한 반응을 요구하였었는데,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무신론자의 평정치 전체 평균이 1.38로 낮은 사람에 대한 평정치(1.40) 수준이어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천주교 신자의 사례수가 작아 천주교와 기독교신자의 자료를 통합하였다. 표 5에서 볼 수 있는 전반적인 경향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동일 종교 신자인 후보에 대한 편들기 경향은 (1)기독교 및 천주교 신자들이 불교 신자보다 강하다. (2)여성이 남성보다 강하다. (3)노인이 대학생보다 강하다. 이러한 경향성은 변량분석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런데, 각 소집단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각 집단별로 특징적인 양상이 발견되었다. 기독교, 천주교 신자의 편들기 지표 평균과 불교 신자의 그것과의 차이(표 5 하단)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가)경상대 여학생과 할아버지 중 기독교 및 천주교 신자는 동일 종교를 믿는 후보에 대한 편들기가 매우 심한 반면 불교 신자는 그렇지 않다. (나)기독교 및 천주교 신자들에서 동일 종교 믿는 후보에 대한 편들기가 더 심한 전반적 경향성은 경상대 남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부산대에서는 기독교 및 천주교 신자들에서 편들기가 심한 전반적 경향에 있어 남녀간에 아주 비슷하게 일치한다. (라)할머니 집단은 어느 종교를 믿든, 동일 종교 신자 후보에 대한 편들기가 심하다. 이러한 집단별 특징으로 인하여 변량분석 결과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

성, 학교/노인 집단, 종교의 $2 \times 3 \times 2$ 변량분석을 한 결과, 종교 주효과($F(1, 377)=22.59, p<.0001$) 성 주효과($F(1, 377)=3.56, p<.06$), 학교/노인 집단 주효과($F(2, 377)=2.99, p<.06$)와 아울러 세 요인의 상호작용효과($F(2, 377)=4.43, p<.02$)가 유의하였다. 이 상호작용 효과의 이유를 보다 확실히 파악하기 위하여, 세 집단 자료 각각에 대하여 종교와 성에 따른 이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부산대생에서는 종교 주효과($F(1, 188)=21.90, p<.0001$)만이 유의하였으며(위의 “다” 참조), 경상대생에서는 종교 주효과($F(1, 75)=4.03, p<.05$)와 상호작용효과($F(1, 75)=6.97, p<.01$)가 유의하였다(위의 “가”와 “나” 참조). 노인에서는 종교 주효과($F(1, 114)=5.71, p<.02$)가 유의하고, 아울러 성 주효과($p=.11$) 및 상호작용 효과($p=.16$)도 경향성을 보였다(위의 “가”와 “라” 참조)

혈연, 학연, 지연 연고의 영향력 비교

혈연(‘오촌 이상의 친척’과 ‘동본’에 대한 반응의 평균), 학연(세 종류 학연 대상에 대한 반응의 평균), 및 지연(세 종류 지연 대상에 대한 반응의 평균)의 각 조건별 평균치 수준을 표 6에 함께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는 혈연(2.16), 학연(2.03), 지연(1.82)의 순이었으나, 집단 및 성에 따라 결과가 달랐다. 연고의 종류를 피험자내 변인으로 한 $3 \times 2 \times 3$ 반복측정 변량분석 결과 연고 종류의 주

표 5. 동일 종교 신자에 대한 투표시 편들기의 성, 종교, 및 집단별 평균 및 표준편차

종교	통계치	노인			경상대			부산대			전체		
		남	여	합	남	여	합	남	여	합	남	여	합
기독교와 천주교	평균(a)	2.24	2.28	2.26	1.69	2.54	2.26	2.00	2.08	2.04	2.00	2.25	2.15
	표준편차	1.09	.96	1.00	.75	1.07	1.04	.97	1.07	1.02	.97	1.05	1.02
	사례수	17	29	46	13	26	39	41	48	89	71	103	174
불교	평균(b)	1.48	2.08	1.90	1.83	1.50	1.60	1.45	1.43	1.44	1.51	1.69	1.62
	표준편차	.81	1.06	1.02	.94	.84	.87	.79	.72	.75	.82	.93	.89
	사례수	21	51	72	12	28	40	49	54	103	82	133	215
(a) - (b)		.76	.20		-.14	1.04		.55	.65				

표 6. 각 집단의 변인별 평균 점수 위치

평균 점수	노 인		경 상 대		부 산 대	
	남	여	남	여	남	여
3.40 - 3.79	자녀 형제, 부모, 배우자, 조부모, 손자녀	자녀, 배우자 손자녀, 부모, 형제 조부모, 삼촌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조부모, 손자녀	부모, 형제, 친구	부모, 자녀, 형제
3.20 - 3.39	삼촌, 사촌, 친구	사촌	부모, 자녀 형제, 손자녀	삼촌, 사촌, 친구	자녀, 조부모, 배우자, 손자녀, 삼촌	배우자, 손자녀 조부모, 친구
3.00 - 3.19		친구	조부모, 배우자, 삼촌, 친구, 사촌		사촌	삼촌
2.80 - 2.99		오촌				사촌
2.60 - 2.79	오촌		오촌			
2.50 - 2.59	서클			오촌, 기독교	오촌, 고등	
2.40 - 2.49		혈연			서클	오촌
2.30 - 2.39	고등	서클	고등			
2.20 - 2.29	혈연, 기독교	기독교, 리동		서클		고등, 서클
2.10 - 2.19	학연, 중등, 리동, 초등	고등, 지연	혈연, 서클, 학연	혈연, 고등	학연, 혈연	
2.00 - 2.09		읍면, 불교, 시도, 학연	중등, 초등	리동	중등, 기독교	기독교, 혈연
1.90 - 1.99		초등, 동본, 중등	리동			학연
1.80 - 1.89	지연		불교, 지연	지연, 학연, 중등, 읍면, 시도	초등, 리동	
1.70 - 1.79	읍면, 동본		읍면, 시도, 동본	초등, 동본	지연, 읍면, 시도	리동, 중등, 초등, 지연
1.60 - 1.69	시도		기독교		동본	읍면, 시도, 동본
1.40 - 1.59	불교			불교	불교	불교

주: (1)4점 척도상의 평정치의 평균임. 척도 1과 2는 각기 “별 주저없이,” “다소 주저하겠지만” 편들기를 안 하겠다는 답, 척도 3과 4는 각기 “약간 주저하겠지만,” “주저없이” 편들기를 하겠다는 답임. (2)평균 3.20이상은 응답자의 80%이상, 3.00이상은 70%이상, 2.50이상은 50%이상이 척도 3, 4에 답한 것이고, 2.20이상은 40%이상, 2.00이상은 30%이상, 1.70이상은 20%이상, 1.60이상은 15%이상이 각기 3, 4에 답한 것임. (3)혈연은 오촌 이상과 동본의 두 대상에 대한 반응의 평균이며, 학연과 지연은 각기 해당 세 대상에 대한 반응의 평균임.

효과($F(2, 1242)=15.85, p<.0001$) 뿐만 아니라, 연고 종류와 학교/노인 집단간 상호작용 효과($F(2, 1242)=2.11, p<.08$)와 연고종류와 성간 상호작용 효과($F(1, 1242)=9.26, p<.0001$) 역시 유의하였다. 학연의 영향은 노인 2.11(남 2.15, 여 2.05), 경상대생 2.00(남 2.15, 여 1.89), 부산대생 2.03(남 2.13, 여 1.92)으로 비슷한 반면, 혈연의 영향은 노인 3.66

(남 2.29, 여 2.42), 경상대생 2.17(남 2.19, 여 2.16), 부산대생 2.07(남 2.12, 여 2.01), 그리고 지연의 영향은 노인 2.02(남 1.85, 여 2.13), 경상대생 1.86(남 1.82, 여 1.89), 부산대생 1.72(남 1.74, 여 1.70)로서 세 집단간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연고종류와 집단간 상호작용 효과의 이유이었다.

또한 혈연의 영향에는 성차가 없는 반면(남 2.17,

여 2.15), 지연의 영향은 여성(1.86)이 남성(1.78)보다 더 강한 경향성이 있으며(혈연만의 2×3 변량분석결과 성 주효과가 $F(1, 687)=2.53, p=.11$), 학연의 영향은 거꾸로 남성(2.15)이 여성(1.93)보다 더 강력한 것이(학연만의 2×3 변량분석결과 성 주효과가 $F(1, 627)=5.27, p<.03$) 연고종류와 성간 상호작용효과의 이유이었다. 이 결과를 달리 정리하면,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에서는 혈연의 영향력이 학연이나 지연의 영향력보다 더 강력한 반면, 남성에서는 학연의 영향력이 혈연만큼 강력한 것으로 요약된다.

혈연의 영향력이 강력하고, 지연의 영향력이 약하다는 이 결과는 우리가 우리 나라의 현 정치현실로서 실감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 불일치는 이 분석에서의 혈연이 “오촌 이상의 친척”에 대한 반응과 “동성 동본”에 대한 반응을 평균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설문지에서 후보의 소속 정당이 언급되지 않은 점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 우리가 선거에서의 혈연 연고주의를 거론할 때는 주로 “동성 동본”을 떠올리는 것이 아닐까 싶다. 표 1과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동성 동본”에 대한 편들기는 아주 약하지만 “오촌 이상의 친척”에 대한 편들기는 아주 강한데 이 둘을 평균한 것이 “혈연” 점수이어서 학연이나 지연보다 높게 되었다. (세 연고주의간의 비교를 결과의 처음에 제시하지 않고 뒤에 제시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한규석(1990)은 어떤 사람이 자신과 동향임을 알게 되었을 때, 혹은 동창임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선거에서 지지할 용의가 그 사람이 동성동본일 때보다 더 크다는 결과를 얻었는데, 이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⁵⁾⁶⁾⁷⁾

- 5) “동성동본”에 대한 반응만을 “혈연”의 지표로 한 (학연과 지연의 지표는 위 분석과 동일) 3×2×3 반복측정 변량분석 결과 연고 종류의 주효과($F(2, 1244)=50.92, p<.0001$)와 연고 종류와 성의 상호작용효과($F(2, 1244)=8.91, p<.0001$)가 유의하였다. 주효과는 남성, 여성 모두 학연 - 지연 - 동본의 순인 것을, 상호작용효과는 지연(남 1.78, 여 1.86)과 동본(남 1.70, 여

현재 우리 나라의 선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 연고주의인데, 표 6에서는 지연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치상황에서의 지역 연고주의는 우리 나라 정당이 각 정당의 이념이나 정책 방향보다도 특정 지역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특정 정치 지도자와 동일시되고 있는 독특한 현실과 관련이 있다(김혜숙, 1994).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뒤로 미루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속 정당이 언급되지 않은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물었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현 정치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따라서 지연의 보다 일반적인 영향력을 밝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동기적 분석

본 연구의 자료에는 여섯 가지 사회적 동기 변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요인분석 결과 반영(reflection),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의리 지킴(value), 자율(autonomy)의 네 가지로 압축되었다(안신호, 1999). 반영은 대상 인물에 동일시하여 자존감을 높이려는 욕구를 의미하며(Tesser, 1986,

1.72)에 대하여서는 성차가 없으나, 학연의 영향력은 여성(1.93)보다 남성(2.15)에서 더 강력함($t(631)=3.15, p<.002$)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 6) 선거지 지지 여부를 취급한 것은 아니지만, 문석남(1990)은 혈연, 학연, 지연의 세 연고관계의 사람들로 부터 “사회생활에서 도움을 받는 정도”를 물었는데, 이 때의 혈연은 “인척관계”이었다. 그 조사에서 혈연 관계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고 답한 사람은 67%로서 동향(58%)이나 동창(50%)의 경우보다 더 많았다. 또한 최석만(1990)은 향우회, 혹은 동창회 참가가 “사회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비율이 각기 47%와 49%인 반면, 종친회 참가가 도움이 된다는 답은 28%로 훨씬 낮음을 보고하였다.
- 7) 본 연구에서는 “오촌 이상”을 “먼 친척”으로 잡았는데 이것이 문제일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오촌 이상을 먼 친척으로 잡은 것은 “경제적, 심리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친척의 범위가 사촌까지라는 나은영과 김혜숙(1997)의 조사 결과와 부합된다. 그러나, 실질적인 도움을 호혜물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범위 너머, 다소 먼 즉 오촌 - 팔촌 사이에서도 같은 혈통으로서의 동류의식을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우리 나라 사람들이 “(가까운) 친척”으로 생각하는 범위가 홍동식(1990)의 조사에서는 친가 팔촌, 외가 사촌, 최재석(1982)에서는 친가 칠촌, 외가 오촌이었다.

1988; Tesser & Campbell, 1980, 1982), 대상 인물의 성공시 느끼게 될 자부심과 대상 인물의 실패시 느끼게 될 수치심으로 측정되었다. 사회적 지지는 대상 인물로부터 사랑과 애감을 받고자 하는 욕구와 대상 인물로부터 도움과 관심을 받고자 하는 욕구로 측정되었다. 의리 지킴은 Baumeister (1988, 1991)의 가치(value) 욕구, 즉 자신을 착한 사람이라고 믿고 싶은 욕구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상 인물에게 의리를 지킬 수 없게 되는 경우 느끼게 될 죄책감의 정도로 측정되었다. 자율의 욕구는 집단주의에 관련된 연구(예컨대, Trafimow, Triandis, & Goto, 1991; Triandis, Bontempo, Villareal, Asai, & Lucca, 1988; Triandis 등, 1985; Triandis, McCusker, & Hui, 1990)에서 흔히 취급되던 연구전통에 따라 포함된 것이었다 (안신호, 1999 참조).

투표시 모든 종류의 연고, 혹은 대상 인물의 편들기에 공통적으로 하나의 동기가 주로 관련될 것인가, 아니면, 투표시 내집단 편들기에 작용하는 동기가 내집단의 종류(연고의 종류)에 따라 다를 것인가, 더 나아가 특정 내집단에 대한 편들기에 주로 작용하는 동기가 집단에 따라 다를 것인가 등의 물음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하여, 각 대상 인물에 대한 네 가지 욕구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투표시 각 대상 인물을 편드는 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분석(stepwise 방식)을 전체 자료에 대하여(표 7), 그리고 여섯 집단(학교/노인×성) 각각에 대하여(표 8), 실시하였다.

먼저, 투표 상황의 내집단 편들기에 작용하는 동기가 다른 집단주의적 행동경향성에 작용하는 동기와 같은지, 다르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주의적 행동경향성의 요인분석에서 세 요인으로 분류되었던, “내집단 구성원을 위한 자기 희생,” “내집단 편애,” 그리고 “투표시 내집단 편들기”의 반응을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분석(stepwise 방식)을 각기 각 대상 인물별로 실시하

였다(표 7). 내집단 구성원을 위한 자기 희생은 “계획하였던 여행을 대상 인물을 위하여 포기할 용의,” “저축한 돈을 빌려달라는 대상 인물의 요구에 응할 용의,” “복권 탄 돈을 대상 인물에게 나눠줄 용의,” “대상 인물을 위하여 일을 해 줄 용의”의 네 가지로 측정하였는데⁸⁾, 이전 연구에서 복권 변인은 집단간 차이를 민감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어(안신호, 1999), 복권을 제외한 세 변인만을 통합하였다. 내집단 편애 요인은 벌금 부과 상황과 서류 발급 상황에서 대상 인물의 편의를 보아 줄 용의로 측정하였다.⁹⁾

표 7에 의하면, 종속변인 ‘자기 희생’의 정도를 결정하는 주요 독립변인은 사회적 지지(social sup-

- 8) 이 네 변인은 Triandis 등(1985)에서 차용한 것으로, 설문지 4부터 7까지로 포함되어 있었다.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문지 4: “당신은 2년 정도 외국에서 특별한 공부를 하기 위하여 상당 기간 준비를 하여 왔다고 상상하십시오. 그 공부는 당신 자신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상상하십시오. 다음 열거하는 각 항의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고, 당신이 출국하면 그 사람이 생활에 불편을 겪게 된다고 상상하십시오. 당신은 그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해외 연수를 포기할 것입니까?” 설문지 5: “당신이 복권에 당첨되어 큰 돈을 갖게 되었다고 상상하십시오. 다음에 열거한 각 항의 사람들 혹은 그들 중 한 사람에게 그 돈을 나눠주겠습니까? 준다면 얼마만큼 주겠습니까?” 설문지 6: “당신이 당신의 사업자금으로 쓰려고 돈을 저축하였다고 상상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적절한 시기가 되면 그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열거하는 각 항의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당신에게 그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설문지 7: “당신이 당신의 일로 무척 바쁜데 다음에 열거하는 각 항의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일 주일 정도 걸리는 어떤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상상하십시오. 당신은 그 부탁을 들어주겠습니까?”
- 9) 설문지 9: “당신이 교통순경으로 일하고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런데 당신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다음 열거하는 각 항의 사람들 중 한 사람이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을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위반한 것은 비교적 경미한 것이어서 위반한 사람의 약 10%에게는 앞으로 주의하도록 경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 벌금 딱지를 떼겠습니까?” 설문지 10: “당신이 관공서에서 일하고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런데 다음 열거하는 각 항의 사람들 중 한 사람이 급하게 서류가 필요하여 신청순서보다 빨리 발급하여 달라고 당신에게 부탁하였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시겠습니까?”

표 7. 희생, 내집단 편애, 및 투표 반응의 회귀분석 결과(영향력있는 동기변인과 베타값)

대 상	종 속 변 인		
	희생(일+여행+돈빌려줌)	내집단 편애(서류+벌금)	투표
가족a	지지(.37), 의리(.24)	반영(.18), 지지(.16), 의리(.11),	반영(.27), 지지(.16)
삼촌, 사촌a	지지(.43), 의리(.26)	반영(.24), 의리(.11), 지지(.11), 자율(-.08)	반영(.24), 지지(.20)
오촌 이상	지지(.37), 의리(.22), 반영(.09)	반영(.43), 의리(.19)	반영(.29), 지지(.10), 의리(.10)
동본	지지(.27), 의리(.23), 반영(.15)	반영(.29), 지지(.12), 의리(.11)	반영(.27), 지지(.11)
같은 리동 출신	지지(.38), 의리(.15), 반영(.15)	반영(.28), 의리(.18), 지지(.12)	지지(.21), 반영(.20), 자율(.07)
같은 읍면 출신	지지(.30), 의리(.13), 반영(.13)	반영(.36), 의리(.15)	반영(.21), 지지(.17)
같은 시도 출신	지지(.35), 의리(.14), 반영(.10)	반영(.35), 의리(.16)	반영(.20), 지지(.14)
초등학교 동창	지지(.41), 의리(.21), 반영(.12)	의리(.25), 반영(.23)	지지(.28), 의리(.14)
중등학교 동창	지지(.40), 의리(.21), 반영(.11)	반영(.27), 의리(.23)	지지(.25), 의리(.15)
고등학교 동창	지지(.35), 의리(.24), 반영(.19)	의리(.26), 반영(.21)	지지(.19), 의리(.18), 반영(.14)
친구a	지지(.34), 의리(.25), 자율(-.07)	지지(.16), 의리(.13), 반영(.10)	지지(.26)
서클, 모임 동료a	지지(.30), 의리(.30), 반영(.18)	의리(.22), 지지(.18), 반영(.17)	지지(.25), 의리(.17), 반영(.14)
동일 종교 (기독교,천주)	의리(.35), 지지(.25), 반영(.20)	반영(.33), 의리(.30), 자율(.16)	반영(.48)
동일 종교 (불교)	반영(.34), 지지(.22), 의리(.15)	반영(.33), 지지(.22)	지지(.30), 반영(.22)

주. 각 대상에 대한 반응에 대하여 네 가지 동기 요인/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회귀분석한 결과임. “지지”는 사회적지지 욕구, 즉 대상 인물로부터 도움과 관심을 받고자하는 욕구와 사랑과 아낌을 받고자 하는 욕구의 두 문항의 평균, “반영”은 대상 인물의 큰 성공 혹은 실수에 동일시하여 자부심 혹은 수치심을 느끼는 정도(두 문항의 평균)임. “가족”은 부모, 형제, 자녀, 배우자, 손자녀, 조부모의 평균.

a. 공선성(collinearity)이 높음

port)의 욕구이고, 종속변인 ‘내집단 편애’의 정도를 결정하는 주요 독립변인은 반영이었다¹⁰⁾. 내집

10) 표 7과 표 8에 제시한 독립변인은 유의수준 .05에 달한 것들이다. 이 두 표의 결과 중, 가족, 삼·사촌이 대상인 자료의 분석 결과는 공선성(collinearity)이 높아(상태 지수 15 이상), 신뢰성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의 포함이 전체 결과 해석의 방향에 영향을 주지는 않으므로 참고 삼아 함께 표에 제시하였다. 친구, 및 서클(모임) 동료가 대상인 경우에도 상태 지수(condition index)가 높은 편이었다. 그 이외의 분석 결과의 상태 지수는 10미만이었다.

단 구성원을 위하여 일을 해 주고, 여행을 포기하고, 돈을 빌려주는 등의 ‘자기 희생’은 주로 그 대상 인물로부터 사랑, 관심, 앞으로 도움을 받음 등의 사회적 지지의 욕구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13가지 대상의 종류에 대한 14분석(동일 종교 신자가 대상 인물인 경우에는 종교별 두 분석) 중 12가지 분석에서 사회적 지지가 가장 중요한 독립변인으로 밝혀졌으며, 나머지 두 분석에서

도 두 번째로 중요한 동기적 요소임이 드러났다. 자기 희생에 영향을 주는 욕구로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의리를 지킴으로써 자신을 착한 사람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욕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14가지 분석 중 한 분석에서는 가장 중요한 욕구, 12가지 분석에서는 두 번째로 영향력 있는 욕구이었다.

내집단 편애를 종속변인으로 한 분석에서는 반

영이 14가지 분석 중 10가지 분석에서 가장 큰 베타 값, 그리고 나머지 4가지 분석에서는 두 번째로 큰 베타 값을 가지고 있었다. 의리 지킴이 내집단 편애에 있어서도 두 번째로 영향력있는 욕구인 것으로 밝혀졌다. 14가지 분석 중 3가지 분석에서 첫 번째로, 그리고 10가지 분석에서 두 번째로 큰 베타 값을 보였다.

투표시의 내집단 구성원 편들기에 있어서는, 반

표 8. 각 대상에 대한 투표 반응의 회귀분석 결과(영향력 있는 동기변인과 베타값)

대 상	노 인		경 상 대		부 산 대	
	남	여	남	여	남	여
가족 ^a	반영(.55)	의리(.39)	반영(.25)	지지(.28) 반영(.20)	반영(.20)	반영(.35) 지지(.20)
삼촌, 사촌 ^a	반영(.59) 자율(.26)	지지(.37)	지지(.38) 자율(.25)	반영(.30) 지지(.19)	지지(.25) 반영(.17)	반영(.33) 의리(.16)
오촌 이상	반영(.50)	지지(.42) 반영(.23)	의리(.27)	반영(.45)	반영(.41)	반영(.42)
동본	반영(.50)	지지(.31) 반영(.26)	지지(.25)	반영(.41)	반영(.17)	반영(.38)
같은 리동 출신	반영(.42) 의리(.37)	지지(.34)	지지(.30)	반영(.26) 자율(.25)	반영(.26)	지지(.42)
같은 읍면 출신	반영(.60)	반영(.28)	지지(.32)	반영(.28)	반영(.26)	지지(.25) 반영(.18)
같은 도시 출신	반영(.54)	반영(.28)	지지(.25)	반영(.21) 지지(.21)	반영(.26)	지지(.34)
초등학교 동창	의리(.52)	지지(.40)	지지(.46)	지지(.29)	지지(.32)	지지(.40)
중등학교 동창	의리(.52)	-	지지(.45)	지지(.26)	지지(.27) 반영(.20)	지지(.21) 의리(.20)
고등학교 동창	의리(.67)	지지(.56)	반영(.41)	의리(.33)	지지(.39)	의리(.27) 반영(.25)
친구 ^a	반영(.48)	지지(.35)	지지(.28)	-	지지(.17)	의리(.30)
서클, 모임 동료 ^a	의리(.45)	의리(.49)	지지(.47)	지지(.45)	지지(.47)	반영(.36) 지지(.28)
같은 기독교/천주교 신자	-	반영(.46)	자율(.89)	반영(.47)	반영(.55)	의리(.57)
같은 불교 신자	의리(.72)	지지(.44)	자율(.58)	지지(.66)	반영(.41)	반영(.43)

주. 각 대상에 대한 반응에 대하여 네 가지 동기 요인/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회귀분석한 결과임. “지지”는 사회적지지 욕구, 즉 대상 인물로부터 도움과 관심을 받고자하는 욕구와 사랑과 아낌을 받고자 하는 욕구의 두 문항의 평균, “반영”은 대상 인물의 큰 성공 혹은 실수에 동일시하여 자부심 혹은 수치심을 느끼는 정도(두 문항의 평균)임. “가족”은 부모, 형제, 자녀, 배우자, 손자녀, 조부모의 평균.

a. 공선성(collinearity)이 높음

영과 사회적 지지의 두 욕구의 영향력이 비슷한 특이한 결과 양상이 나타났다. 표 7에 의하면, 투표 상황의 전체 14가지 분석 중 각기 7가지 분석의 결과에서 반영과 사회적 지지가 가장 영향력 있는 욕구이었다. 그런데 연고의 종류에 따라 영향력 있는 욕구가 달랐다. 혈연과 지연의 경우에는 주로 반영이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어서 사회적 지지 욕구가 두 번째로 영향력이 있었다. 반면, 학연과 친구 및 서클(모임) 동료의 경우에는 사회적 지지 욕구가 일차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다음으로는 의리 지킴이 중요하였다. 반영이 일차 혹은 이차적 영향력을 갖는 경우는 학연과 친구 및 서클(모임) 동료가 대상인 자료에서는 전혀 없었다.

그런데, 표 8의 소집단별 분석 결과에 의하면, 집단에 따라 크게 작용하는 동기가 차이남을 알 수 있다. 집단을 나누지 않고 분석한 결과인 표 7에서는 투표시 혈연이나 지연 연고의 대상자 편들기는 일차적으로는 반영, 다음으로 사회적 지지의 욕구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었는데, 표 8의 집단별 세부분석에 의하면, 혈연 및 지연 연고시의 이 전체적 경향성은 경상대 남학생, 할머니, 및 부산대 여학생 집단에서는 완전히 혹은 일부 역전되었다. 즉 경상대 남학생에서는 혈연, 지연의 두 연고 모두에서 사회적 지지 욕구가 일차적인 독립변인이었으며, 할머니 집단에서는 혈연, 부산대 여학생 집단에서는 지연 연고에서 사회적 지지가 반영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 인물이 학연과 친구관계인 경우의 전체적 경향성(표 7)은 일차적으로는 사회적 지지, 다음으로 의리 지킴 규범이 영향이 큼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표 8에 의하면, 할아버지 집단에서는 역전되어 사회적 지지가 아닌 의리 규범이 학연 연고이거나 친구관계인 후보를 지지하는 주요 동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상대 남학생 집단은 혈연과 지연 연고 두 가

지 모두에서도 반영보다는 주로 사회적 지지의 욕구가 일차적 독립변인인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종교를 제외한 모든 연고에 걸쳐 사회적 지지 욕구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결과를 보였다. 경상대 남학생과 할머니 집단에서는 주로 사회적 지지 욕구가, 그리고 할아버지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의리 지킴이 중요시되는 경향이였다. 나머지 세 집단에서는 표 8의 14가지 대상 인물에 대한 자료의 분석 중 반영과 사회적 지지 욕구가 일차적으로 영향력 있는 독립변인인 경우가 반반씩(부산대 남 8 대 6, 부산대 여 6 대 5, 경상대 여 7 대 5)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상대 남학생은 9가지 분석에서, 그리고 할머니 집단에서는 8가지 분석에서 각기 사회적 지지 욕구가 일차적이었으며, 반영은 두, 세 가지 분석에서만 일차적이였다. 할아버지 집단에서는 반영이 여덟 가지, 의리 지킴이 다섯 가지 분석에서 일차적으로 중요한 독립변인인 반면, 사회적 지지는 유의 수준 $p < .05$ 에 달한 독립변인의 목록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논 의

우리 나라 선거에서의 연고주의 현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혈연, 지연, 학연, 및 기타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 후보로 입후보하였을 때 그 사람에게 투표할 것인지를 묻고 그 반응을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가족과 가까운 친척(사촌까지)에 대한 편들기는 노인과 경상대 여학생에서 강하고, 경상대 남학생이 약하다. 친구에 대한 편들기 경향성은 부산대생에서 높다. 가족, 가까운 친척, 및 친구는 평소 친밀한 관계인 구체적인 개인이므로, 이들에 대한 편들기를 연고주의로 볼 수는 없다. 이들에 대한 반응은 연령(보다 구체적으로는 아마도 결혼 여부)과 도시화 정도에 따라

보다 친밀한 관계로 여기는 대상이 다른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2) 동본과 오촌 이상의 먼 친척에 대한 편들기 반응은 이른바 혈연 연고주의에 따른 투표 성향을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인 - 경상대생 - 부산대생 순으로서 집단주의적 경향성과 일치하는 결과 패턴이었다. 오촌 이상의 친척에 대한 편들기는 학연이나 지연보다 강력하며, 동본에 대한 편들기는 학연이나 지연보다 약하다.
- (3) 지연 연고주의에 따른 투표 성향은 그 지연이 보다 작은 지역(리동)에 기초하는 것일 때 강하였다. 혈연 연고주의에 따른 투표성향과 마찬가지로 노인 - 경상대생 - 부산대생의 순이었다.
- (4) 학연 연고주의에 따른 투표 성향은 남성에서 아주 강한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초등 및 중등학교 동창인 경우에는 노인 - 경상대생 - 부산대생의 순이었으며, 이 순서는 초등학교 학연에서 보다 뚜렷하였다. 고등학교의 학연은 영향력이 컸으며, 특히 부산대생에서 강하였다.
- (5) 서클 연고에 따른 투표 성향도 학연 연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성에서 강하였으며, 남녀 각각 노인 - 부산대생 - 경상대생의 순서이었다.
- (6) 동일 종교를 믿는 후보에 대한 편들기는 (ㄱ)기독교, 천주교 신자가 불교 신자보다 강하며, (ㄴ)여성이 남성보다 강하고, (ㄷ)노인이 대학생보다 강하였다. 또한 (ㄹ)할머니들은 불교신자인 경우에도 편들기 경향이 강하였다.
- (7) 표 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오촌 이상의 혈연, 고등학교 동창, 서클, 기독교 및 천주교가 연고주의에 따른 편들기에 일반적으로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불교, 동본이라는 혈연, 및 지연은 영향력이 약했다.

이상의 결과 중 혈연, 지연, 학연 연고주의에 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1)혈연 연고주의(오촌 이상의 혈연 및 동본), 지연 연고주의, 및 초등, 중등학교 동창의 학연 연고주의에 의한 투표 경향성은 일반적인 집단주의 행동 경향성과 마찬가지로, 노인 - 경상대생 - 부산대생 순의 결과 양상을 보인다. (2)고등학교 동창의 학연 연고주의에 의한 투표 경향성은 오히려 대도시의 대학생에서 가장 강하다. (3)학연에 기초한 투표시 편들기는 남성에서 강하다.

각 집단별 세부 분석에서 나타난 현상들 중 이 요약된 결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들, 즉 할머니, 경상대 남학생, 경상대 여학생의 독특한 결과 패턴은 할머니와 경상대 여학생이 가족 위주의 전통에 얽매어 있는 점, 경상대 남학생이 현 소속 집단들을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으로서 받아들이는 데 불만을 느낄 것이라는 점 등으로 대부분 설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연고주의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얻기 위하여, 각 대상 인물의 편들기를 통하여 충족되기를 원하는 사회적 동기의 정도를 독립변인으로 한 회귀분석(stepwise 방식)을 실시하였다.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집단주의적 행동 경향성 중 내집단 구성원을 위한 자기 희생은 주로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욕구, 내집단 편애는 주로 반영을 통한 자존감 증진 욕구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반면, 투표시의 연고주의에는 사회적 지지 욕구와 반영의 욕구의 두 영향력이 비슷하였다. 의리 지킴은 특히 자기 희생과 내집단 편애에 대하여 주로 이차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투표시의 연고주의에 대하여는 영향력이 약하다.
- (2) 투표시 혈연과 지연에 따른 편들기에는 반영을 통한 자존감 증진 욕구의 영향력이 강하다. 그런데, 경상대 남학생에 있어서는 혈연, 지연 모두, 사회적 지지 욕구의 영향력이 강하고, 할머니 집단에서는 혈연, 부산대 여학생에 있어서는 지연의 경우, 사회적 지지 욕구의 영향력이

강하다.

- (3) 학연에 따른 투표시 편들기에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지 욕구의 영향력이 강하다. 그런데, 할아버지 집단에 있어서는 의리 지킴이 학연에 따른 투표를 주로 결정한다.

내집단 구성원을 위한 자기 희생은 그 대상 인물이 딱한 처지에 빠져 있고 자신이 도움을 주어야 하는 상황을 내포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동일시를 통한 자존감 증진보다는 내집단 구성원끼리의 정이 보다 문제시될 것이다. 내집단 구성원을 위한 자기 희생에 사회적 지지(내집단 구성원끼리 아끼고 상부상조함) 욕구와 의리지킴의 규범이 큰 영향력을 갖고, 반영은 거의 영향이 없다는 회귀분석 결과는 이러한 각도에서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집단 편애의 상황, 즉 내집단 구성원의 교통법규 위반 - 벌금 부과 상황이나, 급한 서류 발급 부탁의 상황도 보기에 따라서는 그 대상 인물이 딱한 처지에 봉착한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벌금 부과는 그 대상 인물을, 나아가서는 응답자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부적인 것에서 정적인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상황적 성격을 내포하며, 급한 서류는 대개 모종의 중요한 일의 성취를 위해 필요한 것일 것이므로, 각기 자존감과 보다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 있다. 동일시를 통한 자존감 증진 욕구가 내집단 편애에 큰 영향력을 갖는다는 본 연구의 결과가 본 연구에서 채택한 내집단 편애 상황의 특수성에 기인한다는 것은 아니다. 자기 희생이 요구되는 상황은 일반적으로 그 대상 인물이 현실적 (보다 흔히 경제적) 곤경에 빠진 경우이며, 그러므로 자존감과는 관련성이 적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 내집단 편애는, 정의상, 내집단 구성원이 곤경에 처한 것이 전제되지 않는다. 내집단 편애의 대표적 상황인 Tajfel의 최소집단간 상황은 곤경의 정도에 있어 내·외집단간에 차이가 없었다. 내집단 편애와 자존감과의 관련성은 내집단 편애 현상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온 Tajfel과 Turner에 의해서도 강조되어 온 바이다.

투표시의 연고주의에는 반영(동일시에 의한 자존감 증진)과 사회적 지지 욕구의 영향력이 컸는데, 연고의 종류에 따라 주로 작용하는 욕구가 달랐다. 즉, 혈연(먼 친척, 동성 동본)과 지연에서는 주로 자존감 증진이, 그리고 학연과 소모임의 연고에서는 사회적 지지 욕구가 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이었다. 이 결과는 먼 혈연 및 지연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그 대상 인물과의 친교가 없을 것이며, 동창이나 소모임 연고의 경우에는 그 대상 인물과의 친교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는지 모른다. 먼 연고가 있을 뿐, 앞으로 개인적으로 접할 기회가 없을 것 같은 경우에는 반영이 주로 영향을 미치지만, 서로 절친하거나 앞으로 이 연고로 대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서로 정을 나누고 상부상조할 것을 바라게 될지 모르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우리의 선거에서의 연고주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집단별 세부 분석의 가장 두드러진 결과 즉, 특히 경상대 남학생에서 먼 혈연과 지연 관계인 후보에 대하여도 사회적 지지 욕구가 크게 작용한다는 결과는 그들이 먼 혈연이나 지연의 후보에 대하여도, 실제로 혹은 적어도 심리적으로 절친한 관계인 것처럼 느끼고 그래서 정과 도움을 나누기를 기대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시골 사람들이 대도시 사람들보다는 먼 친척과도 자주 만날 것이라는 점, 그리고 그들이 같은 고향 사람들에 관하여 잘 알고 친근감을 느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현상이 이해된다. 어쩌면, 시골 사람들은 동향 후보를 마치 이웃 아저씨나 삼촌·조카뻘 되는 것처럼 친근감을 느끼고 있는지 모른다. 그런 것처럼 여겨지는 행동을 우리는 시골 사람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한, 두 가지 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촌락을 이루는

동성촌에서는 지연과 혈연이 합쳐져 보다 친밀감이 강할 것이며, 보다 구체적으로 그 후보가 자신과는 촌수가 멀더라도 이웃의 친척과는 썩 멀지 않은 친척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현상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바이다.

표 6의 대상자간 평균비교에서는 우리 나라 선거에서의 지역주의가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나라 선거에서 현재 가장 문제되는 것이 지역 연고주의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현재의 지역 연고주의는 후보자의 출신지와 유권자의 출신지가 동일한 경우가 아니라, 각 정당이 특정 지역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당을 언급하지 않고 후보자와 응답자가 같은 지역 출신인 경우를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정치현실에서의 지역 연고주의가 잘 드러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서로 아는 절친한 사이에서는 서로 아끼고 돕는 사회적 지지 욕구가, 후보가 내집단 구성원이기는 하나 개인적으로 절친한 사이는 아닌 경우에는 자존감의 욕구가 투표시 연고주의의 주요 기저 동기일 것이라는 가설에 비추어 본다면, 대통령 선거에서의 지역 연고주의는 주로 자존감의 욕구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관해서는 뒤에 논의하기로 한다.

안신호(1999)의 연구에서는 집단주의 행동 경향성, 동기, 그리고 자아확장이라는 세 이론 변인 사이의 인과적 관계 경로를 알아보려 하였었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집단주의 행동 경향성과 네 가지 동기를 각기 통합하지 않은 채 취급함으로써, 이전 연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것, 즉 세 가지 집단주의 행동 경향성이 약간씩 다른 동기적 바탕을 가짐을 알아낼 수 있었다. 안신호(1999)의 경로분석 결과는 그 연구의 가설인 “동기 - 자아확장 - 행동”이라는 모형에 완전히 부합되는 것이 못 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안신호(1999)의 경로분석 결과가 동기와 집단주의 행동

경향성을 각기 하나의 이론변인으로 취급한 데 이유가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집단주의, 연고주의, 공동체의식, 및 집단의 기능

본 연구에서는 집단주의적 행동경향성의 한 요소로서 연고주의적 투표 경향성을 취급하였다. 집단에 속한 한 개인이 그 소속 집단과 관련하여 행하는 행위에 관련하여 최근 우리 나라 학계에서는 몇 가지 개념이 다루어지고 있다. 지난 1988년 한국심리학회의 지역감정 관련 심포지엄, 1990년 한국심리학회가 주최한 집단주의 관련 국제심포지엄 이후, “(지역) 편견”과 “집단주의”는 우리 나라 사회심리학계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가 되었다. 한편, 우리 나라 사회학 및 인류학계에서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역동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혈연, 지연, 학연의 “연고주의”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김진균, 1983; 최협, 1984). 또 다른 한편으로, 최근 우리 나라의 많은 사회심리학자들은 “공동체의식”에 대한 관심이 높고 또한 많은 연구가 발표되었다. 이 네 가지는 상호 중첩되는 부분이 많은 개념들이다. 사회심리학자들의 “집단주의”는 주로 문화심리학적 관심을 가진 학자들(예: 최상진, 2000)이 다루고 있고, 그래서 “집단”의 성격이 분명하지 않은 편이다. 그들은 우리 민족에서 발견되는 집단주의적 심리현상에 주목한다. 사회학자들의 “연고주의”는 학연, 지연, 혈연 등 집단의 성격이 분명하고, 그 구체적 성격의 집단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구체적인 기능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는 특징이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에 있어 정의의 포괄성 면에서 사실상 “집단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김광수, 1990; 문석남, 1990; 최협, 1984). “공동체의식”은 산업화로 인한 인간의 개별화를 극복하기 위한 모색의 일환으로 대두된 것이어서, 내집단 구성원간의 유대와 협동을 강조하는 특징을 갖지만

역시 집단 구성원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회심리적 현상을 망라하여 취급하려 한다는 점에서 “집단주의”와 중첩된다(이종한, 1992). 집단을 통하여 충족되는 사회적 욕구와 관련지어 이 개념들을 생각하여 보는 것이 유용할 것 같다.

모든 집단의 기능은 (1)소속감과 사회적지지 욕구의 충족(Baumeister와 Leary(1995)의 소속 욕구(need for belongingness; McAdams(1982)의 need for intimacy), (2)사회적 정체감 형성 및 자존감 욕구 충족, (3)호혜적 규범에 의하여 현실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음의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 앞의 두 욕구는 우리가 집단을 통하여 필수적으로 충족하고자 하는 기본적 욕구(“기본적인” 사회적 욕구이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에 대하여는 Baumeister와 Leary, 1995 참조)라고 생각한다. 위의 세 번째 기능을 김혜숙, 김영진, 김완석, 나은영, 이종한, 조성을, 및 최진호(1997)는 집단의 “도구적 기능”이라 명명하였는데, 적절한 명칭이라 생각된다. 주로 사회학자들(예: 김진균, 1983)은 “집단에 소속됨으로써 가능하게 되는 심리적 안정감”을 의미하는 “情誼의 기능”이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한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지지 욕구” 충족을 주로 의미하는 것 같고, 어쩌면 “자존감의 욕구” 충족까지를 함께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다.

이 중 소속감과 사회적지지 욕구의 충족은 외집단의 존재가 전제되지도 않고 따라서 외집단과의 경쟁과는 무관한 것이다. 그런데, 정체감 형성과 자존감 욕구 충족에는 외집단이 전제되고 외집단과의 경쟁이 내포될 수 있다. 도구적 기능에 있어서는, 자원의 제한으로 인하여, 외집단과의 경쟁이 내포될 가능성이 보다 크다.

“공동체 의식”에서 강조되는 것은 소속 및 사회적 지지의 욕구가 집단을 통하여 충족되는 측면일 것이다. 소속과 사회적 지지 욕구의 충족은 인간의 행복감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Argyle, 1987; Baumeister & Leary, 1995).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개인이 애써 찾으려 나서지 않아도 소속과 사회적지지 욕구를 충족시켜 줄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한 개인이 출생하면서 혈연이나 지연 집단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 나라나 일본처럼 학연이 끈적끈적한 사회에서는 살아가면서 또 하나의 연고집단이 추가된다. 이러한 점에서 가장 독특한 나라는 미국일 것이다. 소속과 사회적지지 욕구의 최후의 보루는 가정일 터인데, 이혼의 증가로 가정도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사회분위기에서는 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집단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우리 나라 사람들이 주로 혈연이나 학연 등의 연고 집단을 통하여 이 욕구를 충족하는 데 반하여, 미국인들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하여 가입한 집단을 통하여 이 욕구를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이종한, 1992). 미국인들이 소속된 Gemeinschaft적 집단은, 소속 집단이 운명적으로 자신의 일부가 되는 우리 나라 사람들의 Gesellschaft적 연고 집단이 갖는 집단주의적, 연고주의적 부작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 사람들의 “공동체 의식”을 미국의 도구로 측정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우리 나라 사람들의 “공동체 의식”을 정확히 탐지하기 위해서는 소속 집단에 대하여 형성한 집단주의적 요소(폐쇄성, 배타성, 권위주의)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게 된다(정진경, 1999).

집단주의는 소속 집단에 강한 애착 및 충성심을 가짐을 의미한다. 이 충성심은 집단주의 사회의 규범으로 부과되는 측면도 있지만, 그 규범이 유지되는 배후에는 그 집단을 자신의 일부로 여기는 정도, 즉 “자아확장”의 정도가 강할수록 집단으로부터 얻는 이득도 크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다. 그 이득에는 타인에게 무해한 요소도 있고, 타인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요소도 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생기는 것은 외집단과의 경쟁이 불가피해지는 경우이다. 공동체 의식이 주로 외집단과의 경쟁이라는 요인이 개입되지 않는 상황에

서의 집단의 도구적 기능에 따른 이득, 혹은 사회적 지지 욕구의 충족에 초점을 둔 것이라면, 연고주의는 (심리적, 혹은 물질적) 자원의 배분에 있어서 외집단과의 경쟁이 있는 상황에서의 내집단 편애에 초점을 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많은 사회학 혹은 인류학자들(김광수, 1990; 김진균, 1983; 문석남, 1990; 최협, 1984)은 연고주의를 넓은 의미로, 즉 집단주의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지만, 필자는 이종한(1994), 한규석(1990), 및 홍동식(1990)과 마찬가지로 “탈퇴 불가능한 내집단” 즉 연고 집단에 대한 “내집단 편애”라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사회적 지지 욕구와 더불어, 인간에게 근본적인 사회적 욕구는, 어쩌면 동물의 우세위계(dominance hierarchy)에 그 기원이 있을지 모르는데, 자존감의 욕구일 것이다. 필자가 수강생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복했던 순간, 불행했던 순간을 회상”하도록 하였을 때 대부분의 수강생들의 응답 내용은 사회적 지지 욕구 혹은 자존감 욕구의 충족(혹은 좌절)의 순간에 관한 것이었다. 내집단이 자존감의 중요한 원천이 된다는 것(Adler, Tesser), 그리고 외집단이 의식되는 경우 필연적으로 내집단 편애(Tajfel) 혹은 외집단 차별(Sherif)이 나타나고, 이 집단간 상황은 자존감의 욕구를 불러일으킴(Tajfel)은 오랜 사회심리학 연구들이 입증해 온 바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집단주의적 행동경향성 중 내집단 구성원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행동은 주로 사회적 지지 욕구 충족과 관련이 깊고, 내집단 편애는 주로 자존감 욕구 충족과 관련이 깊다는 것은 이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자기 희생”을 공동체 의식이 발현되는 대표적 행동 양식이라고 한다면, 본 연구의 결과는 “공동체 의식 - 자기 희생 - 사회적 지지 욕구,” “연고주의 - 내집단 편애 - 자존감 욕구”의 관계를 암시하는 것이다. 물론 이 대응관계의 각 짝이 완전히 독립적인 것은 아닐 것이다.

내집단 구성원끼리의 호혜성에 기초하여 우리가 얻는 현실적 이득, 즉 집단의 ‘도구적 기능’은 자원의 제한 때문에, 내집단 편애에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Batson, Batson, Todd, Brummett, Shaw, & Aldeguer, 1995). 사회적 지지욕구의 충족은 제한된 자원을 나누는 것이 아니어서 집단간 갈등을 초래하지 않지만, 자존감 욕구의 충족은 승패 혹은 상대적 우위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아서 집단간 갈등의 원인이 될 소지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구적 기능 역시 자원의 제한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 집단간 갈등의 원인이 된다. 이 집단간 갈등은 내집단 편애가 두드러질 때 더 심해질 수 있다(상대적 박탈감이 절차상의 불공정에 의한 것일 때 더욱 분노를 야기하듯이).

연고주의에 대한 이중성

“공동체 의식 - 자기 희생 - 사회적 지지 욕구,” “연고주의 - 내집단 편애 - 자존감 욕구”의 관계에 관한 논의에는 공동체 의식은 집단의 선기능, 연고주의는 집단의 오기능이라는 가치판단을 내포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의 연고주의가 사회적으로 많은 폐단을 야기함을 인정한다 할 때, 그렇다면, 오기능을 억제하고 선기능만이 남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달하게 된다. 연고주의에 관한 많은 논문이 그러한 결론으로 끝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문제는 그것이 얼마나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여러 증거들은 그것이 용이한 일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연고주의는 우리의 욕구 충족에 기여하는 것이며 그것의 억제는 우리의 욕구 충족에 반하는 것이라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 같다. 연고주의의 극복을 위해서는 연고주의 발현을 경계하도록 다짐하는 수준이 아닌, 연고주의의 유혹을 뿌리칠 비장한 각오가 요청됨을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집단의 오기능을 잘 인식하고 있는, 즉 일반인들이 연고주의적 관행에 부정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자신이 그러한 행동을 할 상황에 처하게 되면, 연고주의적 관행에 허용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과 마찬가지로(최석만, 1990), 혹은 오히려 더(한규석, 1990) 연고주의적 행동을 하려 하였다. 이러한 류의 많은 현상을 학자들은 한국 문화의 이중성이라 부르고(개관: 나은영·민경환, 1998)¹¹⁾, 근대적 규범이 아직 생활화되지 않은 데 기인하는 것, 즉 규범으로는 근대적이나 행동적으로는 전근대적인 때문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나은영·민경환, 1998; Cha, 1994). 이 해석에 근거한 제안되는 문제 해결 방안은 규범의 생활화를 독려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제안은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치부를 일깨워 줌으로써 개선의 의지를 보다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치부의 뿌리를 보다 철저히 파헤쳐 본다면, 그리고 그것을 일깨워 준다면 효과는 더 클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Batson의 최근 연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여겨진다.

타인 편들기와 도덕적 갈등

어떤 행위가 부도덕한 행위로서 판단되는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그 행위가 행위자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일 것이다. 그런데, 연고주의를 포함한 내집단 편애는, 표면상으로는, 행위자 자신에게는 이익이 없고 실질적인 이득이 (내집단의) 다른 사람에게 간다.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는, 오히려 이타적인 행위로 여겨질 수도 있다. 최근 Batson(Batson 등, 1995a; Batson, Klein, Highberger, & Shaw, 1995)은 바로 이 문제에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 연구를 발표하고 있다. Batson은 원래 이타행동 연구자로서, 대다수 이론가들이 도움행동도 다른 행동과 마찬가지로 행위자가 손익을 따져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므로

행하는 이기적 행동이라고 주장하는 데 반대하고, 도움행동은 적어도 공감(empathy)에 의한 것일 때는 순수한 이타적 동기를 가진 진실된 이타행동이 됨을 입증하는 작업에 20년 넘게 전념하여 온 사람이다(Batson & Coke, 1981; Batson, Duncan, Ackermann, Buckley, & Birch, 1981; Batson, Dyck, Brandt, Batson, Powell, McMaster, & Griffitt, 1988; Toi & Batson, 1982; 개관, 안신호, 1983, 1986 참조). 그런데, 공감에 의한 이타행동이 그 수혜자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는 피해를 주는 부도덕한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딜레마를 Batson 스스로가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이타행동과 내집단 편애

예를 들어 Batson 등(1995b)의 한 실험에서 참가자는 불치의 병에 걸린 아동들이 남은 생존기간동안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자선단체 홍보용 TV 캠페인의 사전 평가를 요구받는다. 그 영상물의 내용은 한 아동의 현 상태를 소개하고 그 아동과 인터뷰를 한 것이다. 그 단체는 그러한 영상물을 다수 만들었는데 각 참가자는 무작위로 그 중 하나를 보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물론 실제로는 모든 참가자가 동일한 내용을 본다. 참가자들이 본 내용은 불치의 병에 걸려 절을 수 없는, 그러나 고가의 약을 복용하면 죽기 전까지는 뛰고 놀 수 있는 아동에 관한 사정 이야기와 그 아동이 천진하게 자신의 소망을 말하는 인터뷰 장면이었다. 참가자의 설문 응답이 끝난 후 실험자는, 그런데 이전 참가자들이 자신이 본 인터뷰의 아동이 너무 불쌍하니 그 아동을 도움 기회를 달라는 요청을 하여서 실험진은 그 자선단체에 그러한 요구를 전달, 그 단체로부터 각 실험참가자가 원한다면 자신이 본 인터뷰의 주인공에게 자선단체의 혜택이 갈 순서를 앞당길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한다. 도와줄 아동에 비해 그 자선단체의 재원이 적어 많은 아동이 차례가 오기 전에 사망

11) 나은영과 민경환(1998)이 열거하는 이중성의 예들은 대부분 집단주의와 연관된 것들이었다.

한다는 사실, 그 기관이 현재 정한 순서는 아동의 증세를 감안한 등록순이라는 사실도 함께 알려준다. 그리고 방금 본 아동을 “대기자 리스트”에서 “응급 리스트”로 옮겨줄 것을 신청하는 신청서를 주며, 혹시 원하면 그 신청서의 서명란에 서명을 하라고 한다. 이때 서명하는지 안 하는지가 이 실험의 종속변인이었는데, 통제조건보다 공감조건에서 서명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 결과이었다. 자신이 목격한 아동을 위한 서명은 그 아동이 혜택받을 가능성을 높이겠지만, 그 아동의 순서가 앞당겨짐으로써, 다른 아동(들)이 혜택의 기회를 놓칠 가능성 또한 높아지게 된다. 이 실험 상황은 본 연구의 내집단 편애 및 투표시의 연고주의 상황과 비슷하다. 대상 인물을 위한 행동이 공감에 의한 것인가 사회적 정체감에 의한 것인가가 다를 뿐이다.

Batson이 최근 연구들에서 강조하는 것은 본 연구의 내집단 편들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친척이나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눈감아주는 것은 인정의 덕목으로 좋게 받아들여야 할 행동인가(이수원, 1987/1999; 이수원 · 장성수 · 정진곤, 1990), 아니면 비난받아야 마땅한 정실 행동인가? 이 두 판단 중 어느 하나가 전적으로 틀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두 입장 중 하나에 고착되는 것은 어쩌면 “도덕적으로 안이한” 태도일지 모른다. 오히려, 어느 쪽이 옳을지 고민하는 모습이야말로, “도덕적으로 긴장된,” 보다 윤리적인 모습일지 모른다(이수원, 1995). 이 “영거주춤한” 필자의 태도는 인간의 행동이 그것을 유발시킨 동기를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행위자의 동기를 감안하여 선악을 판단하는 데 있어, 그 동기가 행위자 자신을 위한 이기적 욕망인지 아니면 타인을 배려하기 위한 것인지 구분이 명쾌하다면, 우리는 “영거주춤한”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집단(혹은 공감 대상)을 편들으로써 외집단(혹은 미지의 타인)에게 피해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 행위자

는 갈등을 느끼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Tajfel (1970) 실험의 참가자들은 내집단 편애 반응만을 일관성있게 보인 것이 아니라, 여러 시행(trial) 중 내집단 편애 반응과 내·외집단을 공평하게 취급하는 반응을 섞어 반응하였으며(Tajfel은 이러한 반응 양상이 그 참가자들의 도덕적 갈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는데, 적절한 해석일 것이다), Batson 등(1995b)의 공감 조건 참가자들 역시 자신이 공감한 불쌍한 아동의 혜택 순서를 앞당겨달라는 신청서에 서명을 하면서 갈등을 느낀 것으로 보조설문지에 응답하였다(스스로를 공정치 못한 것으로 평정함).

Batson의 핵심 개념인 “공감”을 안신호(1999)는 내집단을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social identity)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아확장”으로 상정한다. 공감이라는 순간적, 상태적 자아확장이든, 사회적 정체성이라는 지속적 자아확장이든, 마찬가지로 내집단 편애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안신호(1999)의 경로모형이 타당한가 하는 것을 떠나, “도움행동/이타행동”과 “내집단 편애”가 자신 아닌 타인을 위한 행동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어쩌면 동기적 기제에도 공통점이 있을지 모른다는 주장(안신호, 1999)과 Batson의 최근 연구들이 이론적으로 상당히 근접해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Batson 등(1995a)도 사회적 정체성 연구전통과 “공감 - 이타행동” 연구전통이 서로 이론적 연계를 꾀할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집단 정체성에 관한 이론과 연구, 그리고 이타주의와 도움행동에 관한 이론과 연구라는, 비교적 고립되어 발전해 온 두 사회심리학 연구전통 사이에 상호 연결(interaction)의 증가가 바람직하다. 연구의 물음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연구 전통은 서로의 존재를 거의 모른(unaware) 채 [연구를 진행해] 왔다(p.630).

집단주의와 내집단 편애

집단주의는, 때로는 개인 자신을 희생하면서, 타인(들)을 위하여 헌신한다는 측면에서 이타행동 및 내집단 편애와 공통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안신호, 1999), 집단주의의 “집단”은 흔히 내집단을 의미하므로, 집단주의적 행동은 외집단에게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다. 즉 Batson이 지적한 도덕적 딜레마는 집단주의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내집단 편애는 집단주의에 관한 경험적 연구에서 항상 대표적 요인으로 포함되는 것이다(안신호, 1999; Triandis 등, 1985, 1990). 사회적 정체성 연구에서의 내집단 편애가 재화 분배(resource allocation)시의 내집단 챙기기를 조작적 정의로 취하여 연구한 반면, 집단주의에서의 내집단 편애는 현실 생활에서 발견되는 보다 다양한 내집단 편애 현상을 망라하고 있다. 그렇지만, 외집단 차별과 관련 짓는 의미에서의 내집단 편애는 집단주의 연구자들로부터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즉, 집단주의 연구자들은 집단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욕구 충족을 양보하고 대신 추구하는 것이, 그냥 “집단” 아닌, “내집단”의 욕구라는 점을 무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심지어, 개인주의 사회는 각자 자신의 이익만을 계산하는 이기적인 인간들의 사회이고, 집단주의 사회는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조화를 우선시하는 양보심 많은 선량한 사람들의 사회라는 가치의식(Clark & Mills, 1979, 1993)이 숨어있는 듯 느껴지는 경우까지 있다.

“공동체를 위하여 그 구성원들과의 조화를 추구함”이 집단주의 사회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조금호, 1999)라는 것은 틀린 주장은 아닐 것이다. 그들은 공동체 속에서 익명으로 일할 때도 사회적 태만 현상을 보이지 않으며(Yamaguchi, 1988),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과 다를 때도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집단에 동조하며(Bond & Smith, 1996), 공동체 단위의 성취를 위한 욕구가 강하다(Maehr, 1974). 그런데, 이때 주

목하여야 할 것은, 이 “공동체”가 “내집단”을 의미한다는 사실이다. 외집단 성원들과 익명으로 공동작업을 할 때는 태만하며(Earley, 1993), 외집단 구성원과 의견이 다른 때는 동조를 하지 않고(Williams & Sogon, 1984), 집단적 성취 욕구(group-oriented achievement need)의 공동체 단위로 외집단이 되는 법은 없다(Maehr, 1974). 각 개인은 자기가 속한 폐쇄적 내집단에 충성할 것이 예상되므로, 내집단 구성원 이외에는 믿기 힘들다. 자신의 내집단 속에 타인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현상 때문에 (특히 혈연이 그 내집단으로 중요시되는 우리 나라의 경우) 부모가 어린 자녀와 함께 동반자살¹²⁾하는 것과 해외입양이 조금도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는 사회적 관행이 된다.

그러면, 공감 대상을 도우면서 그 도움 때문에 피해를 볼 제 삼자가 있음을 인식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Batson 실험의 미국 대학생, 그리고 내집단 편애 반응을 하면서 갈등을 느끼는 Tajfel 실험의 영국 고등학교 학생처럼, 집단주의 사회 사람들은 자신이 헌신하는 집단 밖의 외집단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느끼는가? 이 물음의 답은 간단치가 않다. 왜냐하면, 집단주의는 우리 나라 사회에서 전통적 규범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자기 희생과 내집단 편애의 두 행동경향성 모두에 대하여 의리지킴의 영향력이 각기 두 번째로 중요한 동기요인이었음을 상기하라.) 개인에 따라서는 자신을 보호하는 집단의 우산 속에 안주하여, 그 우산을 툭툭히 퍼 쳐드는 조화와 의리있는 행위에만 몰두할 뿐, 우산 밖의 사람들은 외계인인 양 무심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집단주의의 공동체 의식의 요소와 연고주의적 요소가 동기적 기제

12) 어린 자녀와 함께 죽는 것을 “동반자살”이라 부르는 우리의 관행은 적절하지 못하다. 동반자살이란 죽는 사람들이 자살하기로 각기 결심한, 단 자살 시기를 동시에 택한 경우에 맞는 말이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죽이고 자신도 죽는 것은 “존속살인 후 자살”이라 불러야 적절할 것이다.

부터 다른, 따라서 달리 취급되어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 두 요소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그 두 요소를 관통하는 집단주의적 윤리관을 인간이 지켜야 할 규범으로 전승받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선거에서의 연고주의

그러나, 선거에서의 연고주의에 대한 우리 나라 사람의 태도는 일반적인 내집단 편애(연고주의)에 대한 태도와는 다른 것 같다. 이전 연구(안신호, 1999)에서 투표 상황의 내집단 편들기는 서류 발급 및 교통법규 위반 - 벌금 부과 상황에서의 내집단 편애와 같은 요인으로 묶이지 않았었다. 투표시의 연고주의와 다른 두 집단주의적 행동 경향성(자기 희생과 내집단 편애)과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표 7에 의하면, “의리 지킴”과의 관련성이었다. 아마도 이 점이 투표시의 연고주의를 하나의 독립된 요인으로 성립되게 만든 이유일 가능성이 크다. 내집단 편애와 자기 희생의 두 요인에 대하여 의리 지킴은 $p < .05$ 수준의 유의미한 독립변인으로서 일관성있게 (각기 14분석 중 14 혹은 13분석에서) 나타났다(영향력의 크기는 대개 두 번째이었지만). 그러나 투표시의 연고주의에 있어서는 14 분석 중 5분석에서만 (학연이나 서클 혹은 모임 동료처럼 비교적 가까운 관계인 경우) $p < .05$ 수준의 독립변인이었다. 이 결과는 응답자들이 자기 희생과 내집단 편애를 규범으로 여기는 정도는 강한 반면, 투표시의 연고주의는 그렇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특정 지역 출신 사람은 서울의 대학촌에서 하숙을 구하기가 어려운 점(김진국, 1988)을 비롯하여 우리 사회의 포괄적인 심각한 사회 문제라 할 수 있는 지역 편견이 우리 학계에 연구과제로 대두된 것이 선거에서의 지역 연고주의가 사회문제화되면 서라는 사실이 시사하듯이, 선거에서의 연고주의는

타파해야 할 사회악으로 온 국민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선거에서의 연고주의적 행동을 우리의 집단주의 규범에 따르는 의리있는 행동으로 여기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동생을 위해서일지라도 장난감을 훔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식으로 훔치면 내 동생의 장난감도 그리고 나의 귀중품도 안전치 못할 것이라는 인식, 즉 행위가 초래할 나쁜 결과에 대한 자각 때문일 것이다. 정치 현장에서의 지역연고주의가 초래하는 해악이 우리 모두의 불이익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우리 국민이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지역연고주의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 것을 도둑맞았으니 다른 사람 것을 대신 훔치려는 것처럼, “손해만 보고 있을 수 없다, 만회를 하여야 한다”라는 생각에 자신의 지역연고주의는 당연시하고 다른 지역의 지역연고주의를 비난하는 현상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그것을 규범적으로 옳은 것으로 여기지는 않는 것 같다.

온 국민이 타파해야 할 나쁜 관행이라고 인식하게 된 선거에서의 연고주의는, 따라서, 쉽게 근절될 수 있을 것인가? 결코 아닐 것이다. 거짓말을 나쁜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과 거짓말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과는 별개의 일이다(Hartshorne & May, 1928). 특히 비밀 투표는 Hartshorne과 May (1928)가 부정직한 행동을 연구하기 위하여 조작한, 그리고 대부분의 참가자가 부정직한 행동을 함을 밝힌 상황, 즉 본인 이외에는 누구도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모른다고 믿는 상황,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욕구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매우 힘들다(Hartshorne & May, 1928).

욕구와 판단

우리의 판단은 욕구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안신호, 1996), 따라서 타인들이 보기에는 연고주의로

해석되는 행동도 행위 당사자로서는 냉철한 판단에 의한 확고한 신념적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의 욕구 충족에 유리한 내용으로 사태를 판단하며(Kunda, 1990), 심지어 판단에 사용하는 논리의 선택까지도 욕구의 영향을 받는다(안신호, 1996; 안신호·문지혜·권오식, 1994).

엄격한 의미에서 선거에서의 연고주의는 부적절한 후보인데도 불구하고 순전히 자신과의 연고 관계 때문에 유권자가 지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어느 후보의 적절성에 관한 판단이 그 후보와의 연고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문제는 아주 어려워지는 것이다. 단순노출효과(Zajonc, 1968)만으로도 연고가 있는 후보에 대해서는 좋은 태도를 갖게 될 것이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에게 90%를 상회하는 지지를 한 호남인들은 울어나는 감동을 담고 “선생님”이라 부르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존경스러운, “참으로 준비되고도 남은”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한 것이었다. 정치판에서 “지역감정”이나 “지역주의”라는 말이 상대방을 비난하는 데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좋게 보면,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규범과 행동의 이중성(나은영·민경환, 1998)은 이러한 각도에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이중성의 여러 예 중에는 바로 선거에서의 지역주의도 포함되어 있었다.)

“해당 지역에 연고가 있는 사람은 그 지역에 출마하는 것을 금하는 법(이 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외국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을 제정하지 않는 한 지역 연고주의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스개 주장이 사실은 참일 수 있음을 자각하는 것, 즉 연고주의는 우리의 욕구에 아주 깊이 뿌리를 두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 감정이나 맥락이 우리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욕구와는 무관한 것이어서, 벗어나기가 용이하지만(권준모·이훈구·이수정, 1998; 안신호, 2000; Berkowitz & Troccoli, 1990; Martin, 1986), 욕구에 영향받은 판단은 벗어나기 어렵다

(안신호, 1996)는 것을 인식하고, 현상학자들이 사물의 진실에 도달하기 위하여 힘들지만 유일한 방안으로 제안한 “현상학적 환원”(phenomenological reduction: 자신의 판단에서 자신의 욕구에 의한 부분을 “괄호에 싸서 버리기”)이라는 비판적 자기 성찰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집단의 우산 속에서 보호받고자 집단주의를 미화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연고주의적 투표행동은 시정되기 어려움을 직시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유교적 전통과 근대적 교육: 학연의 역설

연고주의에 관한 이전 연구들에서는, 전근대적인 유교적 전통을 벗어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던 근대적 교육제도의 도입은, 연고주의의 극복에 기여하기는커녕, 학연이라는 새로운 연고주의의 발생을 초래한 역설적 현상을 언급하고 있다(김광수, 1990; 김진균, 1983). 그 연구들에서는 학연 연고주의는 새로운 집단인 동창관계에 유교적 전통의 인습이 작용하여 나타난 것으로 보는 것 같다. 실증적 증거에 있어서도, 교육수준이나 사회경제적 수준에서 더 높은 계층이 혈연, 지연, 학연의 연고주의적 활동에 오히려 더 열성적이었다(문석남, 1990). 윗사람(선배)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연고를 이용하여 여러 실질적 이득을 얻는 연고집단의 도구적 기능들의 작용 등을 고려할 때, 이 설명은 상당히 타당해 보인다. 우리 문화에서의 연고주의적 인습의 영향력이 전근대적 구습을 혁파하는 역할이 부여된 교육장면에서도 그러하다면, 우리 문화에서 연고주의는 불패의 막강한 힘으로 우리 사회에 계속 군림할 것이라는 비판적 결론에 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비판적 결론을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이 현상을 약간 다른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애당초 교육으로 변화되기를 기대

할 수 없을 만큼 우리 문화에서 혈연이 갖는 의미가 중대하였을 가능성이다. 즉 우리의 혈연 중시 문화가 내포하고 있는 족보, 제사 등의 관습은 死後無化恐怖라고 하는 인간의 근원적 “실존적 불안”을 해소하는 종교적 함의를 갖는 것이어서(안신호, 1999), 교육이 다른 해소방안을 제공하지 않는 한(적어도 신교육이 도입된 당시의) 혈연 중시 문화에 수정을 가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이었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족보는 이런 의미에서 졸업앨범과는 질적으로 다른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서양 문학 작품에서 우리는 평소 따르던 어른의 죽음으로 충격에 빠진 아동에게 “그 분은 너와 내가 기억하고 있는 한 우리 속에 살아 있다”라고 일러주는 대목을 드물지 않게 본다. 이때 “우리”는 고인과 친교를 맺은 모든 사람들이다. 그런데, 족보, 제사 문화에서 죽은 후 우리가 남는 것은 혈연을 통하여 지속되는 족보와 제사를 통하여서이다.

다른 하나는 교육의 기능에 관한 문제이다.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피교육자에게 개인적 자부심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개인적 자부심이란 한 개인이 인간으로서 당당함을 느끼는 의미를 의미한다. 만약 피교육자가 자신이 교육을 통하여 알아낸 것이 아주 우수한 발견이라는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다면, 그는 자존감 욕구를 자기 자신 개인으로부터 충족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피교육자가 단지 배워야 할 것, 모르는 것이 산적해 있다는 위압감만을 체험하였다면, 그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존감 욕구의 충족을 얻을 수 없게 되고, 다른 원천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집단”이라는 자신의 학벌은 이때 우선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원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이 두 가지 문제 제기로서 강조하려는 것은 소위 학연의 역설이라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필자의 추론이 사회학자들의 그것보다 더 타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 동기적 기능에 초점을 둔 이러한 접근이 집단주의나 연고주의가

유지, 확산되는 기제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고, 따라서 그 극복에 대한 보다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지역주의 정당과 선거

지난 4월 13일의 16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는 우리 나라 선거에서 지역주의가 얼마나 강력한가를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것이었다. 워싱턴 포스트지가 “마술에 걸린 듯한 지역주의”라고 표현하였다고 위신은 전한다(조선일보, 2000. 4. 15.). 이번 선거에서 지역주의 이외의 또한 승자라고 해야 할 시민연대의 승률도 영호남지방에서는 계산하기가 애매하다. 시민연대가 지역주의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낙선운동 대상자를 정한 선거구에서는 모두 시민연대의 승리였고, 시민연대가 지역주의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낙선운동 대상자를 정한 선거구에서는 모두 시민연대의 패배이었다. 친여 성향의 언론에서는 호남의 경우 무소속후보가 네 명 당선 되었으므로 영남보다 덜 지역주의적이었다고 평하나, 참 어이없는 얘기이다. 호남에서는 무소속 후보도 모두 여당을 짝사랑함을 공언하는 사람들이었다.

영남 사람들은 여당이 무조건 싫다는 것 같았다. 선거 3일 전에 부정하기 힘든 정부의 정치적 성과(남북정상회담)가 발표되자 영남 사람들의 여당 반대 기운이 더욱 드세졌다는 사실(한겨레신문, 2000. 4. 15.; 4. 17.)은 이를 잘 반영하는 것이다.

지역주의 정당의 심리적 기능은 지역 연고주의의 연장선에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도구적 기능으로서, 정치학자들(예컨대, 조기숙, 1992, 1997)은 지역 연고에 따른 투표 성향의 핵심적 원인이 자기 지역에 돌아올 재화의 분배나 인사 등의 실질적 이득이라 주장한다. 다른 또한 기능은 자존감 욕구 충족과 관련되는 것일 것이다. 경험적 증거는 없지만, 아마도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의

호남 사람들의 김대중 후보 지지 물표는 ‘도구적 기능’보다는 자존감 욕구와 더 큰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선거 유세에서 김대중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어도 호남에 특별한 혜택이 가지는 않을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호남 사람들이 꼭 이 주장을 믿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통령 선거에서는 자존감의 욕구가 더 크게 작용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의 그 약속은, 적어도 인사 정책에 있어서는, 지켜지지 않은 것 같다. 이번 총선이 있기 얼마 전, 정부에서의 특정 지역 및 학연의 인사들의 결속에 관하여 엄한 경고를 대통령이 내린 것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호남의 지연 및 학연이 인사정책상 혜택을 받았음을 대통령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 인사정책에 있어서 호남인의 누적된 열세는 언제 누군가에 의해서든 개선되어야 할 문제였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지난 시절 오랫동안 호남 인사들의 등용을 기피하여 온 역사 때문에 인재 등용의 (보다 정확히는 등용할 인재의 pool의) 균형 회복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장관이 되기 위해서는 장관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력이 요구될 터인데 아래 단계부터 경력을 쌓을 기회가 적으면 고위직의 기회는 더욱 적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호남 사람을 “안배”상 장관에 앉히려 하였던 시절의 자료를 보면, 호남 출신의 한 인사는 여러 번 장관을 역임하였다. 잘은 모르지만, 장관에 걸맞는 경력을 갖춘 호남 출신을 찾기가 힘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¹³⁾ 그렇다고 현 호남 출신 대통령이 그 균형을

맞춘 것을 잘 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아니다. 소박한 꿈인지 모르지만 다른 지역 출신 대통령이 그 일을 하였다면 아주 좋았을 것이다.

현 정권의 인사정책에서의 호남 우대는 이번 총선에서 영남 사람들에게 마음 편히 (지역주의라는 계름함을 느끼지 않고) 여당을 반대할 명분을 주었다. 그러나 이 명분은 보다 가시적인, 그래서 쉽게 의식되는 이유일 뿐이지, 마음속의 보다 깊은 뿌리에는 자존감의 욕구가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지역주의 정당 문제의 해결 요건

현재 우리 나라 정치에서 가장 어색한 부분의 하나는 정당이 “권위주의적인 체제를 유지하며 당 총재를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정당이 그 지도자와 동일시되고 [특히] 유권자들의 정당 선호나 정당 동일시가 정당 지도자의 출신 지역과 자신의 출신 지역과의 일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현상(김혜숙, 1994, p.64)이다. 이 인용문은 김영삼 전 대통령도 현역 정치 지도자일 때의 글이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현재 영남 사람들은 특정 지도자와 출신 지역이 불일치하여 그 정당에 부적태도를 가지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¹⁴⁾ 군부 독

출신 대통령 집권 기간동안의 호남 푸대접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호남인에 대한 비호남인의 편견 등의 심리적 요소는 “심리적 환원주의”로 치부하거나, 사소한 요인으로서 가급적 외면하려 한다. (편견의 회생자는 그 편견 내용이 의식되는 것 자체를 피하려 한다는 가설을 그 후 필자는 갖게 되었다.) 학문에 따라 분석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호남 푸대접에 초점을 둔 그 논문들이 지역감정 문제 해결을 위해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지역감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심리학적 요인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3) 본 연구의 주제를 벗어나는 문제이지만, 우리나라 사회 전 영역에 걸친 이른바 지역감정 문제의 핵심은 왜 지난 시절 호남 인사의 등용이 저조하였는가 라는 근본 문제와 관련된다고 생각한다. 자료에 의하면, 소위 영남정권(박정희 - 전두환) 시절보다도 이승만 정권 시절의 호남 인사 등용률이 더 낮았다(안신호, 1988). 지난 1988년 심리학계가 최초로 불을 붙인 이후, 이른바 “지역감정에 관한 학문적 접근”은 사회학, 정치학계에 퍼져 나가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그 연구들은 대부분 지역감정의 기원이 영남

14) 이 점에서 현 여당을 영남 사람들이 왜 싫어하는지, 즉 김대중 대통령 개인에 대한 것인지, 현 정권의 어떤 측면 때문인지, 아니면 호남인 일반에 대한 부적태도가 근본 원인인지,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선거 - 연고주의 뿐만 아니라, 지역감정에 관한 연구를

재시대의 김대중, 김영삼 두 사람의 역할은 그 두 사람의 강한 정치적 카리스마 형성을 가능케 하였고, 따라서 그들이 영향력을 포기할 의사를 갖지 않는 한, 혹은 국민들이 그들의 영향력을 배척할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현 상태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길게 보면 그들의 시대는 끝날 것이다.

연고주의가 선거에 개입될 여지를 막기 위해서, 다른 나라(예: 독일)의 전례 등을 살펴 선거 제도를 개선하는 안 등이 신문 지상에 거론되고 있다. 여기서는 연고주의가 집단의 도구적 기능과 자존감 증진에 주로 기인한다는 이론적 입장에서 이 두 가지가 작동하지 않게 만드는 직접적, 혹은 간접적 장치를 다음과 같이 생각하여 보기로 한다. (1)정당의 특색이 선명하고 (2)후보자의 자격에 관한 정보가 부각되어 유권자가 자신의 선택이 초래할 현실적인 결과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 (3)집단의 도구적 기능이 발휘될 여지를 허용하지 않는 것, 즉 정치지도자가 자신의 연고 집단에 유리한 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4)정치인과의 동일시를 통한 자존감 증진의 기제의 작동이 허용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 단위로 지지 집단이 나뉘지 않는 정당, 그리고 계파, 당수의 후보 공천권 등의 관행이 사라지고, 유권자의 정치적 판단이 유권자의 정치적 관점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분명히 달리하는 정당들이 대립하는, 즉 정상적인 민주적 정당정치에 틀이 형성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념으로 나라가 분단된 현실 등, 여러 장애요소가 있고, 각 정당이 득표에 유리한 것이면 무엇이든 공약으로 올리는, 그래서 정당간의 차별성이 희박해지는 경향이 극복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나아갈 방향이라는 점에서는 국민 모두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

위하여 필요할 것이다.

는 것 같다.

유권자들이 대리인으로 뽑은 사람들이 대리인으로서의 그 심부름을 착실히 이행하였는지를 철저히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역시 필요하다. 이러한 장치는 후보자의 자격에 대한 정보에 주의하게 함으로써 그 이외의 요소(연고 관계 등)에 관심이 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이번 선거에서의 시민연대의 활동 등을 고려할 때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이다. 정치인이 자신의 연고 집단에 지나친 혜택을 주는 정책적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한 감시도 아울러 필요할 것이다. 연고 집단에 혜택을 주는 것은 집단의 도구적 기능을 부추기게 되며, 그러한 것이 관행으로 지속되는 한, 연고에 따른 갈등은 악순환처럼 되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밖에 선거 제도상의 여러 가지 방안도 해결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론상으로는 보다 적절한 방안은 유권자들이 정치인과 자신과의 관계에 관한 생각을 교정하는 것이다. 즉, 정치인들은 우리의 자존감을 높일 동일시 대상감이 아니라, 유권자를 대신해서 국정을 결정하는 일을 하는 심부름꾼으로서, 그러므로 당연히 재선을 위하여 유권자 눈치를 열심히 살피는 권력욕 덩어리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정치인들이 특권층으로 인식될수록 그들과 동일시하여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려는 우리의 심리기제를 억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달성될 수 있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적어도 정치인들 스스로가 자신이 단지 심부름꾼일 뿐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요구하고, 그러한 사람을 정치지도자로 선택하여야 할 필요성을 우리가 자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권준모 · 이훈구 · 이수정(1998). 사회심리학의 새로

- 은 통로: 사회정보의 자동적 처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2, 1-36.
- 김만홍(1994). 정치균열, 정당정치, 그리고 지역주의. **한국정치학회보**, 28(2), 215-237.
- 김광수(1990). 연고주의와 정치적 선택행위. 문석남 외. **지역사회의 연고주의: 혈연, 지연, 학연의 관계망과 그 실태**(pp.49-80). 서울: 일진사.
- 김진국(1988). 지역감정의 실상과 그 해소방안. **한국심리학회 편,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pp. 221-253). 서울: 성원사.
- 김진균(1983). 한국 사회의 구조적 역동성을 분석하기 위한 몇 가지 개념에 관하여. 서울대학교 사회학연구회 편, **한국 사회의 전통과 변동**(pp.351-362). 서울: 범문사.
- 김혜숙(1994).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시민의식과 행동: 선거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 54-68.
- 김혜숙 · 김영진 · 김완석 · 나은영 · 이종한 · 조성을 · 최진호(1997). 한국인의 공동생활 및 활동과 주관적 안녕감: 통합적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3(1), 83-96.
- 나은영 · 김혜숙(1997). 한국의 가족 및 혈연 공동생활과 삶의 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3(1), 3-17
- 나은영 · 민경환(1998). 한국 문화의 이중성과 세대차의 근원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기존 조사항료 재해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4(1), 75-93.
- 문석남(1990). 지역사회에 연고주의. 문석남 외. **지역사회의 연고주의: 혈연, 지연, 학연의 관계망과 그 실태**(pp.9-40). 서울: 일진사.
- 안신호(1983). 비애가 이타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안신호(1986). 이타행동에 관한 일 고찰. (부산대) **사회과학논총**, 5, 235-257.
- 안신호(1988). 집단고정관념 형성에 있어서의 감정과 인지의 효과. **한국심리학회 편,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pp.15-65). 서울: 성원사.
- 안신호 · 문지혜 · 권오식(1994). 동기가 인과추론규칙 선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8(1), 132-149.
- 안신호(1996). 사회적 판단과 동기: 동기가 인지적 전략 선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5(1), 77-103.
- 안신호(1997). 직장인이 추구하는 삶의 의미. 김명언 · 박영석 편, **한국 기업문화의 이해**(pp.388-439). 서울: 오름 시스템.
- 안신호(1999). 한국의 집단주의에 관한 동기 - 자아 개념 - 행동 모형의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1), 121-164.
- 안신호(2000). 감정이 판단에 미치는 영향: '정보로서의 감정' 모형과 판단수정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66-90.
- 이상휘(1993). 14대 대선에서 지역감정이 투표행위에 미친 영향: 전북지역 유권자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27(1), 209-244
- 이수원(1987). 한국인의 인간관계와 정공간. **한국심리학회 심포지움: 현대 산업사회와 적응** (pp.131-142). [조화와 통합의 심리학(故 이수원 교수 논문집) 제Ⅱ권(pp.3-11). 서울: 정민사(1999)에 재수록].
- 이수원(1995). 한국인의 인정: 그 심리학적 함의(Ⅱ). 임능빈 편, **동양사상과 심리학**(pp.561-581). 서울: 성원사.
- 이수원 · 장성수 · 정진곤(1990). 한국인의 인간관계에서 나타난 분배정의에 관한 연구: 공정조망과 인정조망을 중심으로. (한양대) **교육논총**, 3, 117-265.
- 이종한(1992). 공동체 의식에 관한 개인주의 - 집단주의 관점에서의 비교문화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6(2), 79-63.

- 이종한(1994). 연고주의가 한국 사회의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이에 대한 대안의 모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 83-94.
- 정진경(1999). 한국 공동체의식 검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5(2), 19-30.
- 조금호(1999). 문화유형에 따른 동기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33-273.
- 조기숙(1992). 합리적 유권자모델과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 분석. *한국정치학회* 편. 선거와 한국 정치.
- 조기숙(1997). 지역주의 논쟁: 비판이론적 시각에 대한 비판. *한국정치학회보*, 31(2), 203-232.
- 최상진(2000).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 최석만(1990). 한국 사회에 있어서의 연고주의적 태도와 행동의 불일치 현상에 관한 연구. 문석남 외. *지역사회의 연고주의: 혈연, 지연, 학연의 관계망과 그 실태*(pp.175-194). 서울: 일진사.
- 최재석(1982). *한국인의 가족 연구*. 서울: 일지사.
- 최한수(1995). 6·27 지방선거의 평가: 정당지지 및 지역주의 실태. *한국정치학회보*, 29(3), 141-161.
- 최 협(1984). 지역발전과 지역의식. UNESCO 한국위원회 주관, 지방발전연구 세미나 발표 논문.
- 한규석(1990). 대인행동에 미치는 연고주의의 영향. 문석남 외. *지역사회의 연고주의: 혈연, 지연, 학연의 관계망과 그 실태*(pp.131-165). 서울: 일진사.
- 한성열·안창일(1990). 집단주의와 나이, 교육, 결혼, 및 주거 형태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5(1), 116-128.
- 홍동식(1990). 연고주의와 지역감정.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의 지역주의와 지역갈등*(pp.59-73). 서울: 성원사.
- Argyle, M.(1987). *The psychology of happiness*. London: Methuen.
- Aron, A., Aron, E. N., & Smollan, D.(1992). Inclusion of Other In the Self Scale and the structure of interpersonal clos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596-612.
- Aron, A., Aron, E. N., Tudor, M., & Nelson, G. (1991). Close relationships as including other in the 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241-253.
- Batson, C. D., Batson, J. G., Todd, M., Brummett, B. H., Shaw, L. L., Aldeguer, C. M. R. (1995a). Empathy and the collective good: Caring for one of the others in a social dilemma.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619-631.
- Batson, C. D., & Coke, J. S.(1981). Empathy: A source of altruistic motivation for helping? In J. P. Rushton & R. M. Sorrentino(Eds.), *Altruism and helping behavior*(pp.167-187). Hillsdale, NJ: Erlbaum.
- Batson, C. D., Duncan, B., Ackermann, P., Buckley, T., & Birch, K.(1981). Is empathic emotion a source of altruistic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0, 292-302.
- Batson, C. D., Dyck, J. L., Brandt, J. R., Batson, J. G., Powell, A. L., McMaster, M. R., & Griffitt, C.(1988). Five studies testing two egoistic alternatives to the empathy-altruism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52-77.
- Batson, C. D., Klein, T. R., Highberger, L., & Shaw, L. L.(1995b). Immorality from empathy-induced altruism: When compassion and

- justice confli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1042-1054.
- Baumeister, R. F.(1988). The problem of life's meaning. In D. M. Buss & N. Cantor (Eds.), *Personality Psychology: Recent trends and emerging directions*(pp.138-148). New York: Verlag.
- Baumeister, R. F.(1991). *Meanings of life*. New York: Guilford.
- Baumeister, R. F., & Leary, M. R.(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 497-529.
- Berkowitz, L., & Troccoli, B. T.(1990). Feelings, direction of attention, and expressed evaluations of others. *Cognition and Emotion*, 4, 305-325.
- Bond, M. H., & Smith, P. B.(1996). Culture and conformity: A meta-analysis of studies using Asch's(1952, 1956) line judgement task. *Psychological Bulletin*, 119, 111-131.
- Cha, J.-H.(1994). Changes in value, belief, and behavior of the Koreans over the past 100 years. *Kor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8(1), 40-58.
- Clark, M. S., & Mills, J.(1979). Interpersonal attraction in exchange and communal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2-24.
- Clark, M. S., & Mills, J.(1993). The difference between communal and exchange relationships: What is and is no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9, 684-691.
- Earley, P. C.(1993). East meets West meets Mid-east: Further explanation of collectivistic and individualistic work group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6, 319-348.
- Hartshorne, H., & May, M. A.(1928). *Studies in the nature of character. Vol. 1: Studies in deceit*. New York: Macmillan.
- Hofstede, G.(1980).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Beverly Hills, CA: Sage
- Hofstede, G.(1991).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차재호 · 나은영 역 (1995), 세계의 문화와 조직. 서울: 학지사.)
- Kunda, Z.(1990). The case for motivated reasoning. *Psychological Bulletin*, 108, 480-498.
- Maehr, M.(1974). Culture and achievement motivation. *American Psychologist*, 29, 887-896.
- Martin, L. L.(1986). Set/reset: Use and disuse of concepts in impression 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493-504.
- McAdams, D. P.(1982). Experiences of intimacy and power: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motives and autobiographical mem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 292-302.
- Oakes, P., & Turner, J. C.(1980). Social categorization and intergroup behavior: Does minimal intergroup discrimination make social identity more positive?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0, 295-301.
- Tajfel, H.(1970). Experiments in intergroup discrimination. *Scientific American*, 223(5), 96-102.
- Tajfel, H., & Turner, J. C.(1979).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In W. G. Austin & S. Worcel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pp.33-48). Monterey, CA: Brooks/Cole.
- Tajfel, H., & Turner, J. C.(1986). The social iden-

- 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S. Worcel & W. G. Austin (Eds.),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2nd ed., pp.7-24). Chicago: Nelson-Hall.
- Tesser, A.(1986). Some effects of self-evaluation maintenance on cognition and action. In R. M. Sorrentino & E. T. Higgins, (Eds.),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Foundations of social behavior*(pp.435-464). New York: Guilford.
- Tesser, A.(1988). Toward a self-evaluation maintenance model of social behavior.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Vol. 21, pp.181-227). New York: Academic Press.
- Tesser, A., & Campbell, J.(1980). Self-definition: The impact of the relative performance and similarity of other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3, 341-347.
- Tesser, A., & Campbell, J.(1982). Self-evaluation maintenance and the perception of friends and strangers. *Journal of Personality*, 59, 261-279.
- Toi, M., & Batson, C. D.(1982). More evidence that empathy is a source of altruistic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281-292.
- Trafimow, D., Triandis, H. C., & Goto, S.(1991). Some tests of the distinction between the private and the collective 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649-655.
- Triandis, H. C., Bontempo, R., Villareal, M. J., & Asai, M., & Lucca, N.(1988).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Cross-cultural perspectives on self-ingroup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323-338.
- Triandis, H. C., Leung, K., Villareal, M. J., & Clark, F. L.(1985). Allocentric versus idiocentric tendencies: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a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9, 395-415.
- Triandis, H. C., McCusker, C., & Hui, C. H.(1990). Multimethod probe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1006-1020.
- Turner, J. C.(1975). Social comparison and social identity: Some prospects for intergroup behavior.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 5-34.
- Turner, J. C.(1982). Towards a cognitive redefinition of the social group. In H. Tajfel (Ed.), *Social psychology and intergroup relations* (pp.15-40).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urner, J. C., Brown, R. J., & Tajfel, H.(1979). Social comparison and group interest in in-group favoritism.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9, 187-204.
- Williams, T. P., & Sogan, S.(1984). Group composition and conforming behavior in Japanese students. *Japanese Psychological Research*, 26, 231-234.
- Yamaguchi, T.(1988). Exit from the group as an individualistic solution to the free-rider problem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4, 530-542.
- Zajonc, R. B.(1968). Attitudinal effects of mere expo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 (Monograph Suppl. Pt 2), 1-27.

Ingroup Favoritism in Voting: Its Underlying Motive and Relationships to Collectivism

Shin-Ho Ahn

Department of Psych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In order to investigate ingroup favoritism when an ingroup member is a candidate for a representative, data of metropolitan university students, local university students, and elders were analyzed. Ingroup favoritism in voting (IFV) for kinship, region, and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alumni was strong in elders and local university students, which was interpreted as a collectivistic tendency. IFV for high school alumni was strong in metropolitan students. Protestants' and Catholics' IFV was stronger than that of Buddhists. Results of regression analyses showed that IFV for kinship and region should be motivated by self-esteem through identification; IFV for alumni by the need for social support. Self-sacrificing for ingroup members was likely to be motivated by need for social support; General ingroup favoritism in other situations than voting seemed to be motivated by need for self-esteem through identification. Theoretical relationships of these results to Batson's empathic helping, to social identity theory, and to collectivism were discussed.

부록 1. 혈연 대상에 대한 투표시 편들기의 집단별 평균(위) 및 표준편차(아래)

대상인물	노 인			경 상 대			부 산 대			전 체		
	남	여	합	남	여	합	남	여	합	남	여	합
부모	3.57 .78	3.66 .77	3.63 .77	3.34 1.01	3.61 .71	3.50 .85	3.56 .79	3.51 .84	3.53 .79	3.50 .85	3.57 .79	3.54 .82
형제	3.58 .75	3.66 .77	3.63 .76	3.29 1.04	3.54 .77	3.44 .90	3.53 .84	3.42 .89	3.47 .87	3.48 .89	3.51 .83	3.50 .86
자녀	3.63 .77	3.75 .68	3.70 .72	3.30 1.03	3.50 .85	3.42 .93	3.39 .94	3.45 .89	3.42 .91	3.41 .94	3.54 .84	3.48 .89
배우자	3.56 .78	3.72 .76	3.66 .77	3.18 1.07	3.54 .79	3.38 .94	3.33 .99	3.37 .94	3.35 .97	3.33 .98	3.50 .87	3.42 .93
손자녀	3.43 .87	3.69 .75	3.59 .81	3.23 1.05	3.42 .88	3.34 .93	3.30 1.00	3.32 .98	3.31 1.12	3.31 .99	3.44 .91	3.38 .95
조부모	3.44 .88	3.51 .83	3.48 .85	3.19 1.07	3.43 .87	3.34 .96	3.34 .89	3.23 1.01	3.28 .95	3.32 .94	3.35 .94	3.34 .94
삼촌	3.32 .87	3.40 .90	3.37 .89	3.13 1.09	3.32 .91	3.24 .99	3.20 .93	3.08 1.04	3.14 .99	3.20 .96	3.22 .98	3.21 .97
사촌	3.32 .81	3.28 .99	3.30 .93	3.05 1.13	3.24 .99	3.16 1.05	3.10 .99	2.98 1.07	3.04 1.03	3.13 1.00	3.13 1.04	3.13 1.02